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etoday.co.kr

제2664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6

반도체 vs 빅테크 '시총 넘버2' 대결 16

코스피(21일) 3240.79(−27.14P) 코스닥 1010.99(−4.89P)
환율(달러당 원화) 1134.70(+2.4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51%(+0.038%P)

"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고대 학생들, 밥매칭 서비스 개발
他 대학 학생 정보 동의 없이 수집
논란 일자 "문제될 줄 몰랐다" 폐기

올해 초 고려대 학생 A 씨와 B 씨는 '선우밥(선배, 우리 밥 약속해요)' 팀이라는 재학생 대상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밥 약속(밥약)이 필요한 이들은 글을 작성하거나 밥약 신청 시 수락을 기다릴 수 있다. 상대가 매칭된 후 약속을 확정해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선우밥 팀이 만든 '밥약'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고려대에 이어 다른 대학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던 중 성신여대 재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선우밥 팀은 성신여대 재학생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난수처리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이름 △학교 △학과 △입학 연도 △자기소개 △학교상태 △MBTI(성격유형진단검사) △고민 △좋아하는 음식 및 식당 △전체 학교 공개 여부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자체 DB에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신여대 재학생 C 씨와 고대생 D 씨가 밥약 서비스로 매칭되면서 알려졌다. C 씨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우밥 팀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성신여대 측과 기술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고지하지 않았다.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정보 주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동법 제75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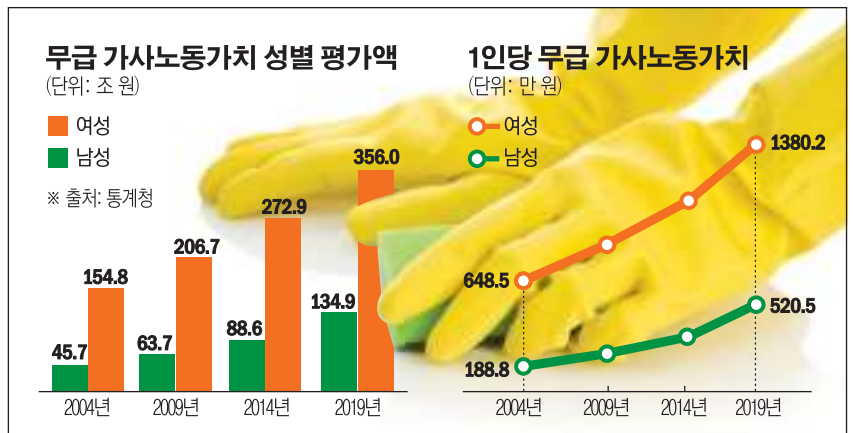
개발팀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사업이나 유료화를 생각하고 진행했던 서비스가 아니었다"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넣는 경험도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인증하기 기능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장된 학과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유료화 수익 사업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우밥 팀은 이용자들의 지적을 수용, 타 학교의 DB를 모두 폐기하고 고려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한·미·일, 북핵 수석 협의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왼쪽부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사진공동취재단



여성 집안일, 남성의 2.6배
돈으로 따지니 年 1380만원

女 하루 205분·男 64분 일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 '491兆'

2019년 여자의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남자의 2.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자료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490조 919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29조 4170억 원(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가사노동가치도 949만 4000원으로 237만 원(33.3%) 증가했다. 2019년 성별 1인당 가사노동가치는 여자가 1380만2000원으로, 남자(520만5000원)보다 859만 7000원(165.2%) 많았다.

그나마 성별 가사노동가치 차이는 추세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남자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64분으로 5년 전보다 11분, 총가사노동가치는 134조8770억 원으로 52.3% 늘었다. 반면,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205분으로 9분 줄고, 총가사노동가치는 356조410억 원으로 30.4% 느는 데 그쳤다. 혼인상태별로 기혼의 성별 가사노동가치 격차는 2009년 3.6배에서 2019년 2.9배로 축소됐다.

남자의 가사노동가치가 증가한 데에는 가정 내 성 역할 변화보단 가구 구성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비혼·만혼 추세와 인구 고령화, 탈가족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혼자 사는 남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가사노동도 늘어난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가치는 5년 전보다 79.7% 급증했는데, 남자의 증가율(85.1%)이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라 '어떤 가사노동을 하느냐'도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통계에선 활동상태별로 유사·동일 직종의 임금 평가액을 구해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시장임금이 높은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해당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도 높아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묻을 곳·태울 곳 없는 서울, 4년 뒤 '쓰레기 대란'

스페셜 e 리포트

시내 소각장 4곳중 2곳이 '노후화'
"혐오시설" 매립지 신청 자치구 '0곳'

쓰레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와 함께한다. 입고, 먹고, 자는 모든 시간 동안 발생한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쓰레기는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법밖에 없다.

4년 후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4곳 중 2곳은 노후화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규 매립지를 공모하고 자원회수시설을 더 만들기로 했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는 탓에 나서는 자치구가 없다.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관련기사 3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내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의 노후도, 사용 연한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쓰레기매립지 확보와 함께 투 트랙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양쪽 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서울에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민간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진단에 따르면 1996년 만들어진 양재와 1997년부터 운영 중인 노원 등 두 곳은 앞으로 10~15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양천구민들은 양천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올렸다.

서울시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2016~2021년 고장 및 수리 내역'에 따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열보일러 수관 누수·재막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쓰레기를 소각해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두 차례 실시했지만 신청지가 없었다. 결국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올해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9월까지 입지를 선정해 2026년 말 완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쓰레기를 묻을 땅도 없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2매립지는 2025년 8월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내걸고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지자체는 없다"며 "2차 공모 이후 3차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靑, 25세 박성민 청년비서관 발탁

정무비서관엔 '0선' 김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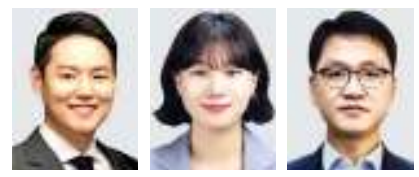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으로 시작된 '청년 열풍'이 청와대에까지 불어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정무비서관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목받았던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정무, 청년, 교육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밝혔다.

박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25세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하고 있다.

김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비서관은 인기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김한규 박성민 이승복

이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를 거쳐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선 청년비서관 자리에 20대 중반의 청년을 내정하고 청와대와 정당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 자리에도 '0선'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세대교체 바람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분출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 대변인은 "청년의 처지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고 조정하는 청년 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사위 경영'은 옛말… 유통가 '딸들의 전성시대'

'외식사업 인정' 구지은 아워홈 신임 대표, 범LG家 첫 여성 경영인
대상 임세령-상민 자매경영 구축…서민정 아모레퍼시픽 2대 주주
형지·세정·한세엠케이·영원무역 등 패션기업 2세 딸들도 경영수업

구지은 아워홈 대표

임세령 대상 부회장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과장

유통가 딸들의 행보가 거침없다.

유통업계는 물론 재벌 대기업에서 딸이 경영에 참여한 사례는 드물다.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도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여성 오너 경영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남편과 함께 부부경영을 펼치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된 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딸들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그림자 같은 역할에 그쳤던 과거에서 벗어나 기업을 진두지휘하고 당당히 승계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오너가 딸들의 위상이 재조명받고 있다. 구 대표는 범 LG가의 유일한 여성 오너 경영인이라는 이정표를 썼다. 구 대표는 2016년 부회장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오빠 구본성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언니인 구미현, 구명진 씨와 함께 경영권 분쟁을 불사했다. 세 자매의 지분은 당시 60%에 육박해 구본성 전 부회장을 압도했지만 당시 장녀인 미현 씨가 막판에 중립을 선언하면서 구 전 부회장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

구지은 신임 대표는 아워홈에서 수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외식사업 등을 진두지휘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오빠인 구 전 부회장의 경우 LG경제연구원에 재직했으나 이전까지 아워홈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구 대표 입장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묵과할 수 없었다. 당시 구 대표는 외식업을 분사한 캘리스코 대표로 자리를 옮겨 와신상담했다. 그리고 5년만에 구 전 부회장의 실적 부진과 보복운전 등 사회적 물의가 겹치자 자매들과 의기투합해 왕좌 탈환에 성공했다. 아워홈은 구지은 대표 취임과 함께 언니인 구명진 씨도 캘리스코 대표에 오르며 범 LG가에 '자매 경영'의 포문도 열었다. 아워홈의 지분은 구 전 부회장이 38.6%로 가장 많지만 세 자매의 지분을 합치면 59.6%에 이른다.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일찌감치 딸들에게 경영수업을 시켜 왔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아들 없이 자매만 두었다는 점이다. 과거엔 딸 대신 사위에게 경영승계를 해왔다면 대상과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선택은 달랐다.

대상은 일찌감치 자매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3월 승진한 임세령 부회장이 2009년 대상에 합류하면서부터 자매경영이 시작됐다. 동생인 임상민 전무는 2007년 대상 계열사에 입사해 2년 먼저 경영수업을 받아 왔다. 지분은 차녀인 임상민 전무가 임세령 부회장보다 많다. 대상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임 전무는 36.7%를 보유했고 임 부회장은 20.4%를 갖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2006년부터 장녀 민정 씨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후계구도를 다져왔다. 차녀인 호정 씨에게도 올해 0.12%의 지분을 증여했다. 본격적인 자매 경영구도를 그린 포석이다.

미국 코넬대를 졸업하고 경영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서민정 씨는 2019년부터 아모레퍼시픽에 합류해 아모레퍼시픽 뷰티영업 전략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 과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비롯해 계열사인 이니스프리(18.18%)와 에뛰드, 에스쁘아의 지분도 각각 19.52% 보유한 2대 주주다.

패션 산업은 딸들의 경쟁이 특히 치열한 업종이다. 중견 패션기업인 형지, 세정, 한세엠케이, 영원무역의 2세 딸들은 각각 계열사 대표에 올라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이들은 유사한 시기에 계열사 대표로 선임되며 패션업계의 여성 경영인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형지 최병호 회장의 장녀 최혜원 형지I&C 대표는 디지털 경영으로 젊은 형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김동녕 한세예스24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씨는 한세엠케이 대표 겸 한세드림 각자 대표에 올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청년 1인 가구, 9평 방에 살고 월세 32만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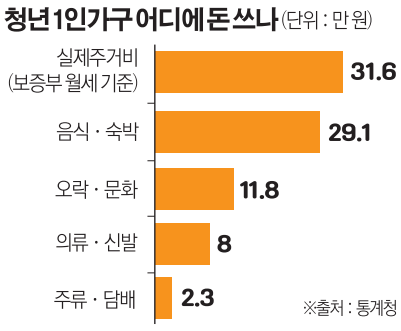
씀씀이 큰데 술·담배 지출 적어

월셋집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31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청년(15~29세) 1인 가구는 실제주거비로 월평균 31만5534원을 지출했다. 이는 청년 1인 가구 중 보증금이 있는 일반 월셋집에 거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실제주거비는 월세와 기타의제주거비 등 매달 주택임차료 명목으로 지출하는 돈인데, 기타의제주거비 비중이 작아 사실상 월세 지출이다.

보증부 월세 기준으로 집계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용 전용면적은 평균 29.93㎡(9.1평)였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14㎡, 4.2평)보다 넓지만, 보증부 월세에 주거하는 전체 1인 가구의 주거면적(보증부 월세 기준 35.22㎡, 10.7평)보다는 좁다.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는 주거용 전용면적이 평균 24.74㎡(7.5평)에 불과했다.

청년1인가구 어디에 돈 쓰나 (단위 : 만 원)



※출처 : 통계청

그나마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용 전용면적은 평균 36.04㎡(10.9평),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 57.66㎡(17.4평)로 다소 넓었다.

기타 지출 내역을 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주류·담배에 월평균 2만3262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2만9751원)보다는 21.8% 적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의 의류·신발 관련 비용 지출은 월평균 7만9603원으로 전체 1인 가구(5만8782원)보다 많았다. 오락·문화 지출(11만8304원)과 음식·숙박 지출(29만699원)도 전체 가구를 웃돌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플레 우려에 전기요금 동결

미조정액 다 써 4분기엔 인상할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동결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발생한 미조정액을 모두 소진하면서 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1일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마찬가지로 1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가 상승 등의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셈법으로 계산하면 kWh당 1.7원 인상해야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우려로 동결한 것이다. 결국 총 4.7원을 내린 효과가 나면서 2분기까지 남아 있던 미조정액(4.7원)을 모두 소진하면서 연동제 도입 후 발생한 미조정액이 제로 베이스가 됐다.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1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2분기와 같게 연료비를 동결시켰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여름철 서민 전력 사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은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매립지 놓고 싸우는 것보다 쓰레기 만들지 않는 게 중요”

르포 ‘수도권매립지’ 위치한 인천 가보니

인천시 “2025년 매립 종료” 선언하자 서울시 “2~3년 더” 신경전
일부 주민 “이미 기피시설 모여있는데 언제 종료되든 상관없어”
“삶의 질 위해 쓰레기 그만 버려야” 매립지 ‘연장 반대’ 목소리도

21일 오전 11시 수도권 제3-1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오류동. 도로에 덤프트럭과 믹서트럭(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 이곳에는 레미콘과 비산회 등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 금속·재료와 금속제품 도매업 등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매립지 입구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자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제3-1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3-1매립지는 103만㎡ 규모로, 서울에서 일평균 800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제3-1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 선언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용량의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3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 24명에게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 인천 시민들도 합세해 ‘연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다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대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가 매립지를 몇 년 더 쓰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A(55) 씨는 “(매립지 운영이) 2025년에 종료되면 안 된다”며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전에도 서울에서 쓰레기가 쌓여 난리가 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정치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일하는 B(48) 씨는 “2025년에 종료하든 2030년에 종료하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폐수처리시설이나 시멘트 공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매립지 사용을 2~3년 연장하더라도 생활 여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운행 기준으로 20분 이내 거리의 생활반경에 쓰레기매립지가 포함되지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곳을 조금 벗어나자 곳곳에서 매립지 연장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은 검단일반산업단지보다 매립지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사용 연장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제3-1매립지와 차도로 약 15㎞ 떨어진 검단사거리역에는 ‘30년 고통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단봉초등학교 학부모 C(37) 씨는 “아이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쓰레기를 묻는 곳이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도시가 조성되고 1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는데 매립지가 있으면 집값에도

21일 검단사거리역 주변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수도권 매립지와는 차로 약 25분 떨어진 지역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서울 쓰레기를 그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D(43) 씨는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 부분을 환원해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이 조성됐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보상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는데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한 바르게살기운동인천서구협의회 사무처장은 “매립으로 발생하는 냄새가 청라까지 날아가고 차량이 오가면서 분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202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재활용 폐기물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일회용품을 줄이고 제품을 오래 쓰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 단계에서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인석 기자 mystic@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 처리” 속도 내는 자원회수 시스템

서울시, 광역순환시설 추진… 자치구 협력 강화도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추진에 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을 필두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의 ‘쓰레기 독립 선언’으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서울시는 자체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곳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지만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은평구는 2023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착공해 재활용 선별시설과 적환시설,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 있는 외부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발생지에서 처리하려는 방안이다.

은평구는 마포구, 서대문구와 폐기물처리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재활용 폐기물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서대문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물은 마포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윤재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진단장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혐오 시설이 아닌 은평구를 대표하는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일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로봇기업 품은 현대차그룹 “인류 위한 역할 할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를 기점으로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 기업가치 제고,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해 ‘로보틱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21일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본계약을 체결한 세계적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분 80%를, 나머지 20%를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하게 됐다. 이번 거래를 통해 평가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약 11억 달러(약 1조2500억 원)에 달한다.

지분 80% 인수에는 △현대차(30%) △현대모비스(20%) △현대글로비스(10%)가 참여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20%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정 회장의 개인 자격 지분 참여는 그룹이 앞으로 본격화할 미래 신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물류 로봇 △안내 및 지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입을 위한 자율주행(보행) △로봇 팔 △비전(인지·판단) 등의 기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앞서 자동차 사업이 50%, 개인용 비행체 30%, 로봇 사업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로봇사업과 UAM(도심항공교통)을 앞세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장 로봇 시장은 서비스를 비롯해 인명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봇의 발달은 곧 센서와 모터 기술의 첨단화를 주도한다.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맞물리면 확장 가능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중장기적으로 로봇 사업을 통해 인류를 위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룹 측면에서는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등과 연계해 로봇 시장 진입부터 스마트 물류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로봇 중심의 새로운 가치 체인도 구축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로봇공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이미 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로봇 양산화 및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2월 인수 전략을 공언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지향하는 인류의 행복과 이동의 자유,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령화, 언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 치안, 보건 등 공공영역에서도 인류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 3% 과징금’ 반응 갈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발의

산업계 “‘전체’ 기준 철회해야”

시민단체 “제대로된 책임져라”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할 때, 선우밥 팀이 유별난 사례는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간한 ‘2021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92.4%로 조사됐지만 정작 공식 문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22.5%에 불과했다.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선 그나마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해, 국회 또한 개인정보위와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적극 호응에 나섰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 상향을 명시했다. 현재 발의된 3개 개정안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한다. 2월 8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전자의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이 237조 원이고 한국 본사 기준으로 하면 166조 원”이라며 “3%를 적용하면 전 세계 매출 적용 시 7.2조 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한국 기준으로 해도 5조 원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10일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시행령에 8가지 항목을 둬 과징금을 낮출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개인정보위가 태도를 고수한 데에는 ‘입증 책임’이 주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약 6년간 국내 이용자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해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거짓 자료, 불안전한 자료 제출로 애를 먹었고, 조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것으로, 업계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라며 “시행령을 촘촘하게 짜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21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 앞에서 전상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노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그룹 창사 이래 첫 파업

임금협상 결렬 6명 천막농성

갈등을 이어 가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이 지난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 이후 최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2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임원 6명만 참여하는 제한적 형태의 선제 파업을 벌였다.

부분파업이지만,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첫 파업 사례다. 업계는 협상 결과가 삼성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부분파업이 곧바로 총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에 기본 임금인상률 6.8%를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기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인상률 4.5%를 고수해 왔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판정을 받으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2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4월 말 노조 측이 사측의 교섭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면담에 나서면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양측은 두 번의 재교섭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 사태를 맞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효성-린데, 연산 1.3만톤 액화수소공장 착공

수소 사업 비전 선포

그린수소 추출·생산 라인 구축

“수소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내 수소 충전시스템 시장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화학 전문기업 린데가 수소 사업 비전을 선포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생산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효성중공업과 린데는 21일 울산 효성화학 용연공장 부지에서 ‘수소 사업 비전 선포 및 액화수소 플랜트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준 효성 회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 자리에서 ‘수소 응용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한 3대 과제도 제시했다. 3대 과제는 △수소 설비 연구·개발 확대 △블루수소·그린수소 추출 기술 개발 및 설비 국산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이다.

효성은 린데와 기술 협력을 발판으로 2024년까지 액화수소 충전 기술·설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블루수소·그린수소 추출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라인도 구축한다. 양사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등 다양한 응용기술을 개발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감축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효성과 린데 생산 합작법인 린데수소에너지㈜는 효성화학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완공하고 2023년 5월 가동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3만9000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판매 합작법인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 플랜트 완공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의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국 30여 곳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날 울산시와 대형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조현준(왼쪽부터) 효성 회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이 21일 울산광역시 효성화학 용연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린데 수소사업 비전 선포식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준 회장은 “수소에너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혁명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효성의 역사가 시작된 울산에서 ‘백 년 효성’으로 나아갈 새 장을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통합·권력분산 위한 개헌은 시대적 요구"

취임 1주년… '정치권 결단' 촉구
"3000달러시대의 '낡은 법' 34년 대타협 기틀 마련 대변혁 필요한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번영 에너지로 승화하려면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권력의 집중이 우리의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하고,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하고,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니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피력했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박 의장은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간 개헌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주장하지만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결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집중할 것도 약속했다. 그는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라며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을 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중점적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최근 36세 당대표가 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이준석 바람이 현상과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文대통령, 수보회의 대신 '정국 구상'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논의결과 검토
성김 "北, 대화 제의 긍정 반응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매주 월요일 열리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대신 대북 대화 재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면담 등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만 비공개로 이뤄지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은 예정대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노덕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을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만큼 논의 결과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 주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접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자 간 실무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한미 간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를 한 후 오후에는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일환 기자 whan@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제4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 참가자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차세대 여성 정치인 앞에 선 이준석
"여풍당당, 성별이 기준 돼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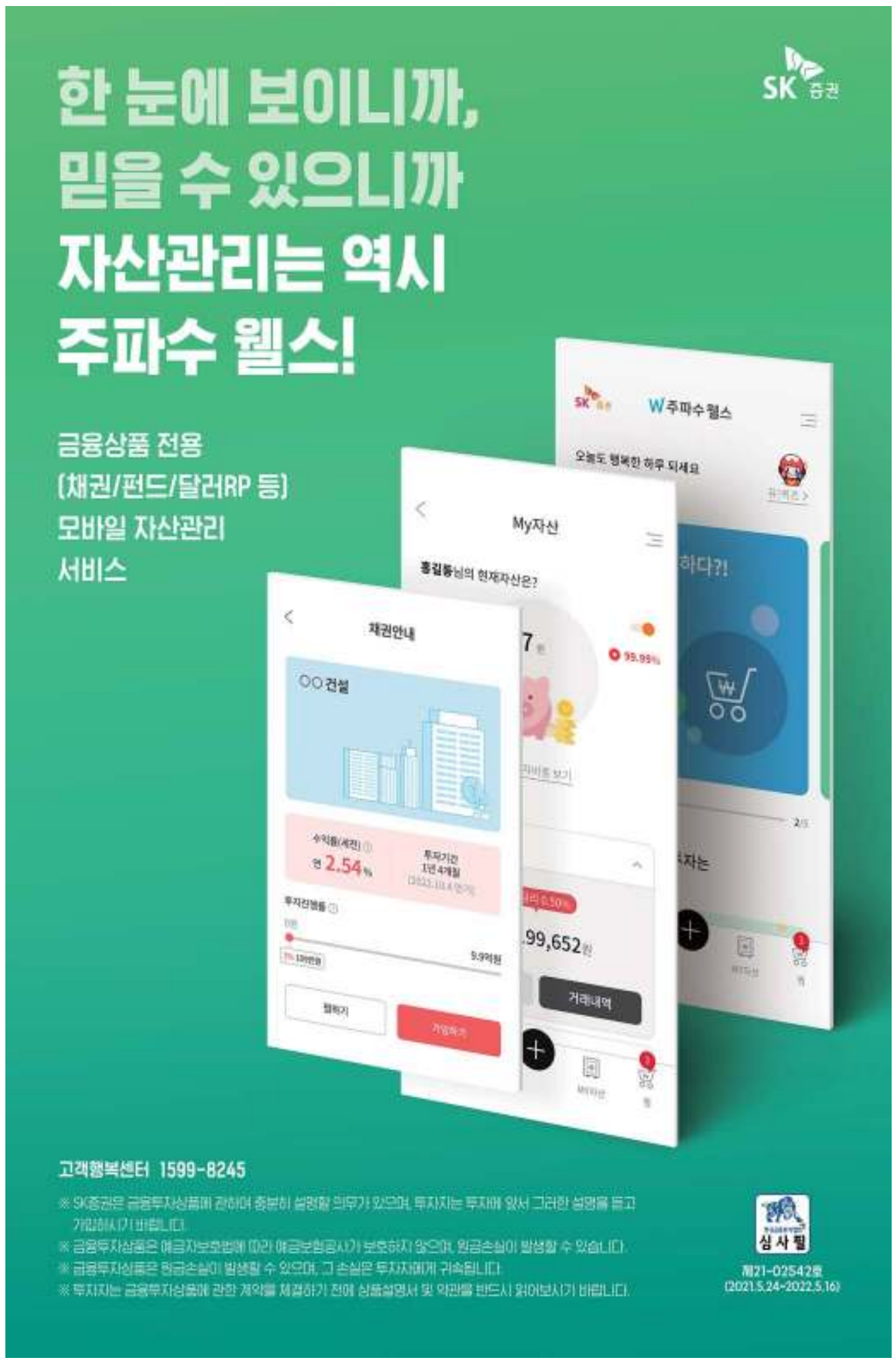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서 여심 공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 앞에서 성별로 차별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젠더 이슈'를 화두로 삼으며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끌었던 이 대표가 여성들의 마음마저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성들의 표심을 강조했던 만큼 국민의힘은 견고한 여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4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앞으로 성별이 하나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라며 "실력에 따라 사람을 뽑고 쓰다 보면 어떤 때는 남성 100%가 나올 수 있고, 여성 100%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20·30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 '20·30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도 강남갑 당협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여성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도 이 대표는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인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우리 당에서도 정치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얘기했다. 당내에서 여성이 더는 차별받지 않는 구조가 확립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여심 사로잡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제3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지난 선거에서 20·30 여성으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여성의 표심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여성 지지율은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여성 표심을 견고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기자 joooooon@



〈20만 여명〉

50代·AZ 미접종 고령층 내달 '화이자' 맞는다

1차 접종 1501만명으로 30% 육박
집단면역 청신호…50대 모더나 병행
혈전증 사망 '백신 연관성' 첫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까워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1501만4819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2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규 접종자는 1000명대로 줄었으나, 누적 접종률은 목표치(25.0%)보다 4.2%포인트(P) 높다. 70~79세(87.3%) 등 고령층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더해, 얀센 백신 보급으로 30대(20.3%) 접종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예방접종 목표 초과 달성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시설운영·활동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 접종 초기 방역조치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방역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초기 확진자 급증을 어느 정도 통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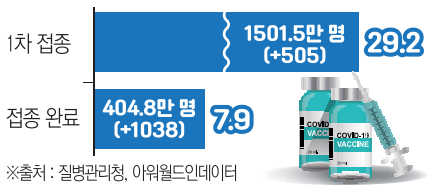
향후 안정적 예방접종을 위해선 기본방역수칙 등 방역조치 준수가 필수적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층은 8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그때까지는 좀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최우선 접종대상은 고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6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20만여 명이다.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접종이 시행된다. 대상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다. 50대에 대해선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3분기 1차 접종자가 (예상했던) 2300만 명보다 줄었을 것 같은데 공급 예정 백신은 8000만 회분"이라면서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라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례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이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접종 뒤에 멍이 생기는 것 외에 접종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평소보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생기거나 출혈 경향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전체 인구대비 접종률 (단위 : %)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6월 21일 0시 기준 ※( )는 신규



※출처 : 질병관리청, 아워월드인데이터

모더나 접종 시작 상급종합병원 30세 미만 의료인 등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美·獨·佛까지 덮친 '델타 변이'

백신접종으로 해제했던 '봉쇄조치' 강화
하늘길 닫히고 경제 정상화도 차질 우려

영국을 덮친 인도발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국과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지배종(種)으로 올라섰다. 기존 항체 회피 가능성마저 제기돼 백신도 소용없다는 공포가 커졌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전 세계가 방역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 최근 신규 확진자의 각각 98%와 96%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FT는 바이러스 추적 데이터베이스인 지사이드의 글로벌 게놈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16일 기준 러시아 신규 확진자의 99%, 이탈리아는 26%, 벨기에가 16%, 독일이 15%, 프랑스는 6.9%가 델타 변이로 파악됐다. 확산 속도가 가팔라 아직 비중이 적은 국가들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온다.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입원율도 2.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감염자 중 31%가 델타 변이로 나타난 미국도 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래스카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국지적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올 초 백신 접종 성과로 해제했던 봉쇄 조치도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다. 포르투갈은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이 발생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제한령을 내렸다. 외부에서 리스본으로의 이동이 금지됐고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다. 앞서 영국은 21일로 예정됐던 봉쇄 전면 해제를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늘렸던 항공편을 다시 축소했다. 최근 약 950편이 취소됐다. 델타 변이 확산 등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방송과 무디스애널리틱스가 개발한 미국 '백 투 노멀 지수'는 18일 93%를 기록했다. CNN은 "미국이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최종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 코로나19가 일부 펀더멘털을 변경해 미국 경제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김서영 기자 0jung2@

숲 총리·한국노총 간담회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동명(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인력 양성"

바이오소부장 R&D 강화 지원 약속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코로나 19를 계기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바이오 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장관은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활용한 산학협력 강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입지 문제 해소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원부자재 공급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본 인프라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인력, 원부자재 등 튼튼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 공정인력양성 센터 구축, 바이오소부장 R&D(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문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 현장을 방문해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기업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노동규제 개선 시급"

경총, 50인 이상 기업 322곳 조사
10곳 중 7곳 "정부별 큰 차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노동규제'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49.8점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는 300인 미만 기업(이하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이하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때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그 밖에 '의원입법 발의 때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0.1% → 10% 상향

2030년까지…탄소배출권도 인정

정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 처리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처리해 발생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까지는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처리 규모는 연간 1만 톤 규모를 2025년 31만 톤, 2030년에는 90만 톤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서 올해 3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석유·화학기업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나프타,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대전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Life is Good!을 위한 젊은 도전

즐거운 상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꽉 막힌 도시, 시원하게 열어줄래!"

AI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세종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LG CNS **박수경**

"가전도 80억 인구에 개인 맞춤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전자 **염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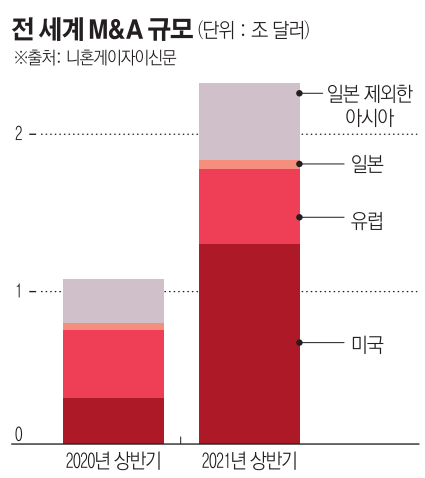
"신약 개발 속도, AI로 확 올려볼까?"

딥러닝 기술로
신약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LG AI연구원
Rodrigo Hormazabal

LG

디지털·脫탄소 러시 M&A 2.3배 늘었다

상반기 세계시장 2.6조 달러 거래 총 2만5069건, 3년 만에 증가세 포스트 코로나·스팩 합병도 한몫



올해 상반기 글로벌 인수·합병(M&A)이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화와 탈탄소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M&A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정보 업체 레피니티브를 인용해 17일 기준 올해 글로벌 M&A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해 2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M&A 건수는 2만5069건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실제 거래액은 2조6000억 달러(약 2949조 원)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이 3.8배 성장하며 전체 절반에 가까운 1조2929억 달러를 책임졌다.

닛케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경제 재개 속에서 가속하는 디지털화와 탈탄소 테마를 중심으로 M&A 시장이 재편됐다"며 "세계 각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넘쳐나는 현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 시장의 M&A가 활발하다. 코로나19 이후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미디어 기업 디스커버리는 최근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보유한 미디어사업부와 합병하기로 했다. 그 규모는 최대 1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병 후 양사는 스트리밍 산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독립 법인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마존닷컴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를 84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록키와 007 시리즈 등 유명한 영화와 TV 드라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구독자는 1억5000만 명으로 미국에서 넷플릭스 다음으로 많다.

미국에 비해 경제 정상화가 늦은 유럽과 일본은 상반기 M&A 규모가 전년보다 각각 25%, 1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역시 디지털화와 탈탄소 정책에 따른 움직임이 강세다. 영국 전력 공기업 내셔널그리드는 웨스턴파워디스트리뷰션을 78억 파운드(약 12조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일본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히타치는 미국 IT 기업 글로벌로직을 96억 달러에 사기로 했다. 글로벌로직은 '디지털 변환(DX)'에 특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M&A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공표된 스팩에 의한 M&A는 3480억 달러로 무려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팩 상장은 최근 규제로 인해 성장 속도가 느려졌지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글로벌 물류대란 '아마존 프라임데이' 울상

'한여름의 블프' 무색, 중소기업 절반은 납품 지연 따른 '재고 부족' 예상

'한여름의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미국 아마존의 연간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가 광범위하게 퍼진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아마존 입점 업체들이 당장 21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광범위한 공급망 장애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판매자들은 올여름 대규모 세일 기간에 재고가 바닥나진 않을까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온라인 운임 견적 사이트 프레이토스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5%가 공급망 혼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화물 지연으로 인해 올해 프라임데이에 재고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된 재고로 인해 올해 일부 품목은 예년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많은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데다가, 반도체와 플라스틱 등 핵심 원자재 품귀 현상에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허덕이고 있다. 선적 컨테이너와 항공 화물 수용력 부족도 공급망 대란을 심화했다. 여기에 노동력 부족도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시스템 전체에 걸쳐 주요 업무가 밀리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많은 중소 아마존 판매업자들은 광둥성에서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주요 수출 항만이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해 난리가 난 상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매 업계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나단 골드 전미소매협회(NRF)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한 분야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다친다"고 경고했다. NRF는 "1만6000개가 넘는 회원사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 제품을 확보하기까지 2~3주가 더 걸렸다"며 "모든 회원사가 공급망 혼란의 결과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NRF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공급망 문제에 대한 조처를 촉구했다.

장난감 제조업체 MGA엔터테인먼트의 아이작 라리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사업을 하면서 42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과 같은 혼란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MGA와 같은 대기업은 프라임데이에 앞서 몇 개월 전부터 재고를 쌓아두는 전략을 취했다. 프레이토스의 즈비 슈라이버 CEO는 "아마존 중소 판매업자 대부분은 (대기업처럼) 프라임데이 3개월 전에 재고를 확보할 현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히말라야에서 '요가 삼매경' 21일(현지시간) '제7회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인도-티베트 국경경찰들이 히마찰프라데시주의 한 초소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으로 요가를 하고 있다. 유엔은 2014년 1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날을 세계 요가의 날로 선포했다. 히마찰프라데시/EPA연합뉴스

"AMC처럼" 부실기업들, 잇달아 유증

'밈 주식' 대박 나자 재정가뭄 해소 위한 기업증자 늘어

이른바 '밈 주식'으로 주목받은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이 회사의 행보를 뒤따르려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종목을 뜻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석탄생산업체 피바디에너지와 해양시추업체 트랜스오션, 의류소매업체 익스프레스 등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피바디는 최대 1250만 주 증자를 계획하고 있고, 익스프레스도 최대 1500만 주 신주 발행을 목표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트랜스오션도 최대 4억 달러어치 신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시세'에 소액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모두 막대한 부채와 손실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 꼬리표가 붙은 기업들이 운영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은 드물다. 하지만 밈 주식으로 주목받은 AMC 사례는 이들 부실기업에 '잠재적인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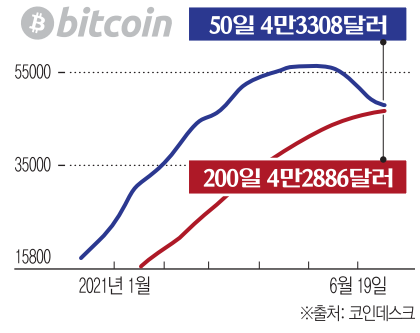
AMC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으나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폭등했고, 치솟은 주가를 회사 재무 구조 개선에 이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22억 달러에 달한다. 헤지펀드 라이트스피드매니지먼트의 제이미 짐머맨 최고경영자(CEO)는 "부실기업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증자만이 자금 조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 유동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자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기업도 덩달아 증가하게 됐다.

이들 부실기업이 유상증자에 성공해 더 나아가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루게 된다면 비전문가인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을 재편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기업이 유상증자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中 채굴업체 90% 폐쇄, 비트코인 약세

전력난에 규제강화 가상화폐·NFT 가치하락 예고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의 전망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채굴업체 90%를 폐쇄한 데 이어, 비트코인이 장기 약세장 신호를 보내고 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은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미 업체들에 전날까지 채굴 작업을 종료할 것을 통보했고 현지 전력을 공급해온 전력회사들에도 즉시 작업 중단을 명했다.

칭하이성과 윈난성 등 다른 성들도 쓰촨성과 비슷한 조처를 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의 90%, 거래능력의 30% 이상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이 지나치게 많은 전력을 사용해 정전 우려가 있고, 나아가 기후환경에도 해를 끼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미 비트코인은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 조짐을 보인다. 장기 약세장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프레드 어샴 공동 창업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데드크로스가 보여주듯 대부분 가상화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불가능토큰(NFT)의 90%는 3~5년 이내에 거의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NFT 열풍은 90년대 닷컴버블과 유사하다"며 "기반이 약한 대부분 가상화폐 가치는 사라질 것이고 NFT 시장도 붕괴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어샴 창업자는 현재 코인베이스를 떠나 '패러다임'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사를 운영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4월 1000억 달러 가치(약 114조 원)를 인정받고 상장했지만, 비트코인 하락세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한 상태다.

포브스는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도 지난달 2조5000억 달러에서 최근 1조5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만 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로"…당국 "안 돼"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개요

적용대상

❶ 금융상품 유형 중 대출성, 보장성 원칙 적용
❷ 상품 특성상 적용 불가 시 예외
❸ 투자성은 비금전 신탁, 일부 고난도 금융상품

행사기간

대출성 14일 이내, 보장성 15일 이내, 투자성 7일 이내

법적효과

판매자가 소비자에 원 금액 반환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
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보험계약대출은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감독규정에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에서는 보험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청약철회권의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도로 계약체결이 이뤄지며,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금전부담 또한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대출과 달리 취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낸 보험금을 담보로 해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보험계약적립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를 받지만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종속된 표준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대출의 청약철회는 대출계약의 취소이지 한도 내 대출 실행 한 건의 취소가 아니다"라며 "보험계약대출 역시 보험계약의 해지하거나 대출실행 한 건의 취소를 청약철회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보험계약담보대출은 본인 또는 타인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별도의 상품이며, 보험계약대출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담보대출은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일반대출 상품으로 금소법 조항 적용에 어려움이 없지만, 보험계약대출은 형태상 대출일 뿐, 보험계약에 종속된 하나의 의무성 제도로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금소법상 독자적인 대출성 상품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이 역시도 금융당국은 거절했다.

한편 금소법에 신설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가 가능해지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상품 유형 중 대출성, 보장성 원칙에 적용하며 상품 특성상 적용 불가 시 예외투자성은 비금전 신탁, 일부 고난도금융상품이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권, DSR 규제 완화 자영업 포함 난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음달 가계부채 대책 시행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40%로 제한
청년층 미래소득 예상해 한도 높여
은행 "자영업 예측 어렵다"

미래 소득을 반영,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함께 자영업자도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은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치 않은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출한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정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대책안을 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공고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에는 미래 소득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무주택자로서 대출자와 배우자의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해 연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직종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근로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자영업자 등도 미래 소득 반영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소득 추정 자료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그 자료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은행들은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대상에 자영업자를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통계 자료 미비에 더해 업황에 따른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상황에서는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라고 우려했다. 근로 소득자가 된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 미래 소득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은 예측하기 어렵다.

김범근 기자 nova@

우리은행 여성리더 양성 '우리 윙' 발대식 우리은행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인 '우리 윙(WING)' 1기 발대식을 18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광석(앞줄 가운데) 우리은행장이 '우리WING' 1기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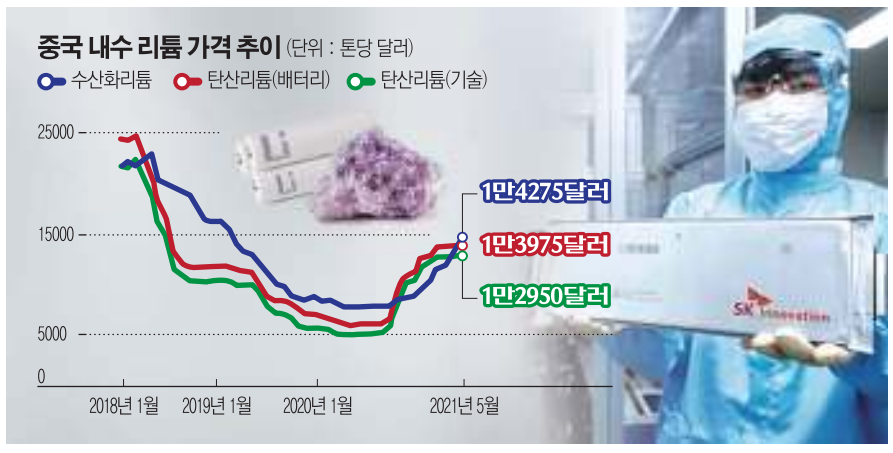
수은 5조6000억 규모 UAE 금융 지원 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의 거대 국영기업과 국내 첫 '발주처 금융' 협정을 체결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 주로 보증을 통해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선박 등의 수출을 지원해왔다. 발주처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한도방식의 금융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20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 국영에너지기업(ADNOC) 본사에서 술탄 아흐멧 알 자베르 회장과 만나 5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 한도 약정'을 위한 금융협력 협정서에 서명했다. ADNOC은 아부다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이다. 수은과 ADNOC은 금융 제공 한도와 지원 조건 등을 협약서에 담았다. 앞으로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대주단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하이니켈 배터리’ 인기에 수산화리튬 가격 ‘고공행진’

톤당 1623만원 연초보다 82%↑
中CATL, 리튬 대신 나트륨 적용 배터리 가격 경쟁력 확보 나서
업계 “가격 변동 반영 공급계약 K배터리에 비용 부담 제한적”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니켈의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원자재인 수산화리튬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대신 나트륨을 적용한 배터리 출시를 예고하는 등 배터리 업계의 비용 절감 노력이 가속하고 있다.

21일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벤치마크 인텔리전스(Benchmark Intelligence)’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의 수산화리튬 가격은 톤(t)당 1만4275달러(약 1623만 원) 수준이었다. 연초 대비 82% 올랐다.

같은 시점 배터리용 탄산리튬의 가격은 톤당 1만3975달러였다. 수산화리튬의 가격이 약 9개월여 만에 탄산리튬을 넘어선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은 크게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으로 나뉜다. 탄산리튬은 노트북과 휴대폰용 등 소형 배터리에, 수산화리튬은 고성능 전기차용 등 대형 배터리에 주로 쓰인다.

수산화리튬은 니켈과 합성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니켈의 비중을 높인 소위 ‘하이니켈’ 제품에 집중하면서 수산화리튬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이뤄진 ‘삼원계’ 배터리에서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니켈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효율성이 더 높다는 장점도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은 특히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K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기존 니켈, 코발트, 망간의 양극재 구성에 알루미늄을 더한 NCMA 배터리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SDI도 NCA 배터리에서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내년 니켈 함량을 93%까지 늘린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하이니켈 배터리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테글리노 테슬라 부사장은 “현재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코발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니켈만을 이용해 안정성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CATL이 내달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리튬의 가격 상승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적용한 배터리를 말한다. 나트륨의 가격이 리튬보다 저렴한 만큼 생산 비용을 줄여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흐름이 K배터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가격 변동성을 반영해 장기적인 시점으로 협의한다”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LG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 출시

LG전자는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의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LG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은 70만 장 수준인 기존 제품 대비 4배 늘어난 약 300만 장의 사물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실내 공간과 장애물을 더 정확하게 인지한다. 신제품의 CPU(중앙처리장치)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기존 모델인 LG 코드제로 씽큐 R9 보이스 대비 연산 속도가 약 1.8배 빨라져 장애물을 더 빨리 감지한다. 출시가는 129만 원이다. 사진제공 LG전자

조선 빅3, 올해 수주목표 초과 달성 ‘순항’

컨테이너선·LPG선 앞세워
연간 수주목표 달성률 ‘72%’

우리나라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수주 목표 달성률이 올해 2분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70%를 뛰어넘었다. 하반기 수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선 3사는 올해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해외 주요 선사와 선박 총 10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1조936억 원에 달한다.

10척의 선박은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9만1000㎥급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3척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 △11만5000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4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1조1225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잇따른 조 단위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목표 달성률은 72%로 뛰어올랐다.

이중 가장 앞선 업체는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122억 달러(140척)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149억 달러)의 82%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도 현재까지 컨테이너선 38척, 원유 운반선 7척, LNG 운반선 3척 등 총 48척, 59억 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목표 수주액(91억 달러)의 65%를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33척, 47억1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목표 77억 달러의 61.2%를 달성했다.

조선 빅3의 수주에는 해상운임 급등에 따라 발주가 늘어난 컨테이너선과 한국이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LPG 운반선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 빅3가 현재까지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81척에 달한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1만20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1만2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중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47.5%를 거머쥐었다. 조선업계는 카타르 LNG선 발주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되면 빅3가 올해 목표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카타르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총 100여 척가량의 LNG선 건조 슬롯을 예약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中企 해운대란 해소 나선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동

포스코가 최근 선박 부족 및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포스코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광수 포스코 물류사업부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미애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 협력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소 고객사들의 경우 수출 물량이 적어 선박의 적기 확보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아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사의 소량 화물도 포스코 물량에 함께 선적할 수 있도록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개발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은 합적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이 선사에 수시로 연락해 선적 일정을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스케줄 확인부터 합적 신청까지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발된 포스코의 상생형 물류 플랫폼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포스코 철강제품과 함께 합적한 고객사 물량은 4만 톤에 달한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포스코와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플랫폼을 개방할 예정이다.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주요 국적 선사들과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포스코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적 대상 화물은 철강류 등 벌크화물이며, 운송 지역은 세계 7개 권역 80여 개 항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포스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스틸앤닷컴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또는 트레이드 콜센터를 통해서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글로벌 해운 대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 물류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 UH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출시

2021년형 신제품 4종 선봬

삼성전자는 2021년형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오디세이(Odyssey)’ 4종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시장에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디세이 G70A(28형·사진)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오디세이 최초의 UHD(3840x2160) 해상도를 갖춘 평면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했다.

오디세이 G70A는 GTG 기준 1ms의 빠른 응답속도와 144Hz의 높은 주사율로 잔상과 끊김 없는 화면을 구현한다. 또 차세대 영상 표준으로 각광받는 HDR 기술이 적용돼 화면 속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오디세이 G70A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와 엔비디아 지싱크 컴패티블(G-Sync Compatible) 호환 등을 지원해 고사양 게임 중 PC와 모니터 간 통신 문제로 화면이 끊기는 티어링(Tearing) 현상을 줄여준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G70A 뿐만 아니라 G50A(27형), G30A(27·24형) 모델도 함께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21년형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전 모델은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Pivot(화면 가로·세로 전환) △Swivel(좌우 회전) 등 인체공학적 스탠드를 적용해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70A 28형은 국내 출고가 기준 95만 원, G50A 27형은 65만 원이며, G30A 27형·24형이 각각 31만 5000원·21만 5000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오롱인더스트리 첨단 석유수지 첫 생산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인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석유수지를 생산한다.

코오롱인더는 21일 전남 여수공장 석유수지 생산 시설을 1만5000톤 규모로 증설해 독자 개발한 반응형 석유수지(HRR)와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액상석유수지, 고성능 타이어용 수지도 양산한다.

코오롱인더는 연산 총 2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석유수지 제조 부문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이다. 앞으로 첨단 석유수지 생산 능력을 2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코오롱인더는 이번 공정을 독자 기술로 구축해 사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코오롱인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액상석유수지도 출시한다. 석유수지를 액상 형태로 공급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코오롱인더가 두 번째이자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김대영 기자 kd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네'로 시작해
'네'로 끝나는 하루

다른 사람에게 맞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나요?

일상 속 작은 일부터
내 생각대로 자신있게
도전해보세요

나 자신을 찾는 것
내 자산이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자산+

농협60주년

NH Bank one up All

나를 발견하는 자산관리 NH자산+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만나세요

나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내 **자산**과 **소비패턴**을 한눈에

MY목표를 세운 후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

나만을 위한 **MY보고서**로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1-2991(2021.06.15~2023.06.15) ※서비스 관리 부서 : NH농협은행 개인종합 자산관리 Cell

NH농협은행

정수기부터 슈드레서까지 #갬성

1

2

3

4

1 비스포크 제트.
2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3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 '삼성 비스포크 홈 2021' 행사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4 비스포크 슈드레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 20종 출시 완료

삼성전자가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주는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BESOPKE)'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2019년 6월 제품 타입·소재·색상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했으며, 연이어 직화 오븐·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인덕션·큐브냉장고 등 주방 가전으로 맞춤형 콘셉트를 확대해 '비스포크 키친'을 완성했다.

더 나아가 올해 3월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콘셉트를 거실, 세탁실 등 집안 전체로 확장한 '비스포크 홈'을 발표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전격 공개한 '비스포크 홈'의 20종 제품을 모두 출시했다.

우리집 인테리어 '비스포크' 하세요

냉장고 3종, 정수기,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인덕션, 에어컨 2종, 공기청정기, 청소기 2종,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2종, 슈드레서, 무선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이다.

가장 최근 출시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360° 제트샷'과 '열풍건조' 기능을 더해 세척 성능뿐만 아니라, 건조와 살균까지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360° 제트샷' △식기에 눌어붙은 밥풀이나 양념을 닦기 쉽게 만들어 주는 '스팀 불림'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세척해 주는 '4단 입체 물살' 기능을 통해 애벌 세척을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 주는 '3단계 클린세척'을 구현한다.

위생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젖병을 포함한 플라스틱 식기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건조 성능이 약 31% 향상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통살균' 코스를 활용하면 세제 없이도 고온직수와 열풍으로 식기세척기 내부를 살균해 한층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탈취·건조·살균을 통해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주는 신개념 가전이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운동화나 긴 부츠 등 다양한 신발을 편리하게 거치하고 기기

소재·색상 등 소비자 선택권 부여
주방가전 넘어 집안 전체로 확장
"미·유럽 등 세계시장 확대 원년"

작동 시에는 에어워시가 신발 구석구석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냄새 입자를 효과적으로 털어낸다.

또 'UV 냄새분해 필터'로 땀 냄새와 발 냄새 등 5가지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해 준다. 이 제품은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도어 패널만 별도로 구매해 교체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여 라이프스타일 가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지난 3월 '비스포크 홈 2021' 행사에서 "가전제품의 혁신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비스포크 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라며 "맞춤화·모듈화·세련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주방을 넘어 집안 모든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비스포크 비전'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냉장고의 경우 3가지 타입의 제품에 8가지 도어 패널을 도입했으며, 특히 4도어 타입은 정수 기능이 있는 '베버리지 센터(Beverage Center)'를 탑재했다.

냉장고를 포함한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는 샴페인 로즈·네이비·매트 블랙 등의 스틸 계열과 화이트 글래스 등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엄선해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Air',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제트·제트 봇 AI' 등을 연내 추가로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유럽에는 작년 10월 비스포크 냉장고를 처음으로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상반기에는 14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냉장고 패널을 선보인다.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제트와 제트 봇 AI 등도 비스포크 라인업으로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지난달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비스포크 큐브 Air, 비스포크 제트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를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더욱 풍부한 가전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기반의 특화 서비스도 세계 시장에 확대 도입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싱스 앱과 해당 기기를 연동해 식단 구성이나 레시피 추천, 의류 케어, 실내 공기질 관리, 펫 케어 서비스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적의 의류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싱스 클로딩 케어'는 작년 10월 유럽에 이어 올 3월 미국에 도입됐다. 추후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와 AI 기반 세탁기·건조기를 연동해 더욱 차별화된 의류 관리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재료나 음식 선호도, 보유기기 등에 맞춰 최적의 식단과 조리법을 추천해주는 '스마트싱스 쿠킹' 역시 3월 미국과 유럽 등에 도입됐다.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를 통해 집 밖에서도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펫'은 미국과 유럽 등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어'는 미국에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이재승 사장은 "올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본격 확대되는 원년"이라며 "비스포크 홈의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삼성 가전의 브랜드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기 본질에 집중, 성능·위생 '두 토끼' 잡았죠"

'비스포크 정수기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꼼꼼한 필터링을 거친 정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성능과 디자인을 두루 갖춘 '비스포크 정수기'를 출시했다. 정수 성능은 물론, 위생 관리까지 놓치지 않은 비스포크 정수기의 상품기획과 엔지니어를 삼성전자 뉴스룸이 만났다.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삼성전자에도 정수기는 도전의 대상이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정수기가 설치될 주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간은 적게 차지하면서도 뛰어난 정수 기능을 갖춘 정수기였다. 상품기획 및 엔지니어들은 비스포크 정수기를 선반이나 싱크대 옆에 올려 사용하는 카운터 탑 형태가 아닌 빌트인 모델로 개발했다.

또 비스포크 정수기는 설치 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게 상하, 좌우 설치가 모두 가능

일반 가정 주방 환경 면밀 조사
빌트인 모델로 설치 제약 최소화
정체수 자동 배출 시스템 도입
살균기능 탑재로 유해요인 줄여

5

한 모듈형을 채택했다. 이종호 엔지니어는 "우리나라는 싱크대 장의 종류도 많고, 브랜드마다 규격, 깊이, 내부 구성이 다양하다"며 "설치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모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수기는 다양한 기능과 옵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정수'라는 제품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박정하 엔지니어는 "필터의 성능을 높이려면 필요한 구성품도 많고 크기도 커지는데, 그러면 내부 저항도 함께 커져 물의 세기가 줄어든다"며 "이를 위해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세디먼트(1단계)와 카본블록(2단계) 필터 두 개를 병렬형으로 배치하는 것. 이렇게 구성하면 UF 필터(3단계)에서는 두 갈래의 물이 합쳐져 유량 손실을 줄이며 유속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 POST 필터(4단계)까지 거치면서 맛, 냄새 물질까지 잡아 주게 된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파우셋으로 나오기까지 거치는 내부 소재도 고심을 거듭했다. 이정근 엔지니어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물이 장시간 내부에 머무르거나 온수가 닿았을 때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소재는 과감하게 사전에 제외하고, 내부 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대체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스마트 클린 케어'도 도입했다. 3~4개월에 한 번 방문해 케어 하는 것이 아닌, 3일에 한 번 '자동살균'과 4시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내부 관의 정체수를 자동 배출하는 '자동 배수' 기능 등을 탑재했다.

김성모 프로는 "현재 시장에서 고정된 3개월 관리 주기는 실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사용량을 고려하지 못한다"며 "가족 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세척 빈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성을 고려한 세심한 기능도 포함됐다. 물 온도에 따라 파우셋 출수부의 색상이 바뀌는 '컬러 라이팅'이 대표적이다. 또 온도마다 사운드도 다르게 출력돼, 시각이 불편한 이들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정근 엔지니어는 "일반 성인이 아닌 노약자나, 눈 혹은 귀가 불편한 장애인의 사용성도 고려했다"며 "라이팅의 경우 광학, 광기계를 다루는 부서와 협업해 어려운 과제를 풀어냈다"고 접근성을 고려한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김성모 프로는 "앞으로 비스포크 정수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을 만들어내는 '워터 스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6

5 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의 상품기획과 개발을 맡은 김성모(왼쪽부터) 프로, 이종호, 박정하, 이정근 엔지니어.
6 비스포크 정수기.

SAMSUNG

중소 조선업계 "원자재 값 상승에 납품단가 현실화해야"

조선업 사상최대 수주 불구
저가 수주 경쟁·원가 상승
업계 15%만 "실적호전 전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조선업종이 다시 활력을 찾은 가운데, 조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분위기는 잠잠하다. 수주 경쟁이 심화한 데다 원자재 값 상승세에도 납품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 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중소선박과 부품, 선박 정비업체 등 조선산업 관련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올해 경영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 기준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 46.7%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38.0%였다. 반면 호전될 것으로 본 기업은 15.3%에 불과했다.

업황이 차이를 만들었다.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중·소형 선박 수주 확대'(39.1%), '중소 조선소 원부자재 납품확대'(37.0%) 등을 꼽았다. 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일감부족'(86.0%),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동결·인하'(50.9%) 등의 답변을 내놨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올라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느냐고 묻자 절반 이상(58.7%)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선박 저가수주 경쟁 심화'(27.8%), '발주처의 과당경쟁 유도'(24.4%), '관급선박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19.3%) 순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3.0%가 모른다고 답했다.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인 RG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중소조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방안 수립 및 활성화'라는 응답이 82.7%에 달했고, '관급물량 확보 및 해양플랜트 제작 등을 통한 일감지원'(48.3%),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참여 지원'(12.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사상 최대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업계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손실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RG 활성화 등 중소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 마련도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이통사, 신제품 앞두고 아이폰11·Z플립 재고 턴다

KT, 아이폰11 출고가 첫 인하
LG유플러스, 지원금 대폭 올려
Z플립3, 전작보다 가격 낮출 듯

애플의 '아이폰11'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 5G' 실구매가가 떨어졌다. 하반기 아이폰13(가칭)과 갤럭시Z플립3 출시 전 재고 소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1일 통신 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KT는 이달 18일 아이폰11의 출고가를 기존 105만6000원(128G 모델)~99만 원(64G 모델)에서 95만7000원~89만1000원으로 인하했다. KT가 아이폰11의 출고가를 인하한 건 201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아이폰11은 애플의 마지막 LTE 스마트폰이다.

LG유플러스도 이달 1일 아이폰11프로맥스와 아이폰11프로의 출고가를 인하했고, 동시에 공시지원금은 인상해 실구매가 낮추기에 동참했다. 아이폰프로맥스의 공시지원금은 기존 14만4000~6만6000원에서 40만~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출고가는 기존 173만8000~152만9000원에서 105만6000~9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아이폰11프로도 공시지원금이 14만4000~6만6000원에서 40만~30만 원으로 올랐고, 출고가는 기존 158만4000원~137만5000원에서 99만~95만7000원으로 인하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Z플립 5G 실구매가도 떨어졌다. SK텔레콤(SKT)은 이달 18일 갤럭시Z플립 5G의 출고가를 134만9700원에서 124만9600원으로 인하했다. Z플립 5G의 출고가는 출시 당시 165만 원으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Z플립의 공시지원금을 올려 실구매가를 낮췄다. 이달 15일 KT는 Z플립 5G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도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이폰11 시리즈와 갤럭시Z플립 5G의 가격 인하는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재고 소진 압력 영향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올해 9월 신형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종류는 전작인 아이폰12와 마찬가지로 미니, 프로, 프로맥스 등 4가지 모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서구권에서 불길한 숫자로 통하기 때문에 아이폰13이 아닌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갤럭시Z플립3는 8월 출시될 전망이다.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Z플립의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3 출고가는 플립 5G보다 최대 20%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T '누구 케어콜' 광주 진출, 백신 접종 등 안내

내달부터 광주에서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백신 접종 등 안내를 수행한다.

광주광역시는 21일 코로나19의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SK텔레콤㈜(SKT)과 인공지능 '누구(NUGU) 케어콜' 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누구 케어콜'은 SKT의 누구(NUGU)가 전담 직원을 대신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백신 접종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대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 사업 공동협력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이 산하기관 등에 적극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SKT는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 서비스를 광주광역시에 제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기타, 감염병 관련 AI서비스 개발 및 보급, 데이터산업 육성 등에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 등이다.

이용섭(오른쪽) 광주시장이 21일 SKT 이현아 AI&CO장과 인공지능 활용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SKT

SKT 누구(NUGU) 케어콜은 자가격리자의 발열, 체온, 기침, 목 아픔 등을 확인하고 안내하기 위한 '코로나 케어콜'과 백신 접종 대상자 일정 사전 안내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백신 케어콜' 서비스가 있다.

기존 이동통신망에 구축돼 별도의 앱이나 기기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SKT에서 실시간 관제와 대응으로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SKT는 "백신 접종 등 계속된 방역 활동으로 지쳐있는 전담 공무원의 업무 가중(피로도)이 70%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매직 신용등급 줄상향, 신평사 모두 'A+'

SK매직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상향됐다. 21일 SK매직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데 이어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안정적)'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 16일 한국기업평가는 △렌털계정의 빠른 성장세에 따른 사업 안정성 제고 △탄탄한 이익창출력 유지 전망 △우수한 유동성 대응 능력 △SK 계열 내 위상 제고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18일에는 NICE신용평가도 △제조 및 판매, 렌털사업에 기반을 둔 사업 안정성 보유 △매출 외형 성장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 △채무부담 대비 우수한 수익창출력 등을 상향 조정의 근거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했다.

SK매직은 지난해 렌털 누적계정 200만 돌파, 연결기준 매출 1조246억 원, 영업이익 81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방역당국이 내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다. 사적 모임 인원이 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명동 거리. 신태현 기자 holjjak@

영업시간 연장·사적모임 완화 내달 '새 거리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중기중앙회, 피해 지원 촉구
"코인노래방 등 제한 아쉬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개편한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전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등 코로나 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피해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출자금 지원 확대, 백신 접종 우선 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영업 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 경기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안 시행을 계기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영업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소상공인 지원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전국의 소상공인들 모두 온전히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바"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기존 거리두기 체제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의 경우 완전한 영업 재개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그간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업종이라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다만 코인노래방이 일반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받아 여전히 수도권에선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코인 노래연습장들은 다들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며 "보다 섬세한 거리두기 수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길 바라는 업종도 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중소 숙박업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우리로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진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라면 밴드로 묶고, 공병 수거 '친환경 포장' 대세

농심 생생우동 묶음 간소화
이니스프리 '공병 프리퀀시'
지구 살리는 '착한 경영' 확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재 업계가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심은 라면 비닐 재포장 방식을 변경해 포장지 사용량을 줄인다고 21일 밝혔다. 농심은 이달 말부터 생산되는 '생생우동' 4개 묶음 제품 포장을 기존 플라스틱 팩에 넣는 대신 밴드로 감싸 포장을 간소화한다. 농심은 이를 통해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연간 약 10톤 규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에 맞춰 포장을 바꾸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농심은 제품명과 바코드 등 필수 정보는 밴드에 인쇄하고, 하나씩 분리하기 쉽게 절취선을 삽입했다. 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시설 안정화를 추진해 향후 다른 제품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농심은 포장재 규격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트레이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연간 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바 있다. 최근에는 큰사발면의 용기를 PSP 재질에서 종이로 바꾸고 생생우동 용기를 흑색에서 백색으로 전환해 재활용 용이성을 높였다.

농심은 플라스틱 재활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사내에서 수거한 백산수 페트병을 재활용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재생 페트(PET)로 만든 필름을 실제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식품업계 최초로 5월부터 오징어짬뽕 큰사발 뚜껑의 재료로 재생 페트 필름을 사용했고 올 하반기 출시하는 신제품 포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제 친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과 공존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공병수거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병 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003년 처음 시행한 이니스프리 '공병수거 캠페인'은 화장품 용기를 줄이기 위해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동참한 고객들에게 뷰티 포인트 등을 적립해 주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밴드로 감싼 농심 '생생우동'.

새롭게 도입되는 공병 프리퀀시는 다 쓴 공병을 반납할 때마다 스티커를 부여해 모은 스티커 개수에 따라 차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공병 스티커 10개, 20개, 30개 등 개수에 따라 추가 뷰티포인트, 에코백, 리스테이 핸드워시 세트 등을 증정해 환경을 위한 고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니스프리는 공병수거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2011~2020년) 플라스틱 및 유리 1027톤을 수거했다. 1316톤의 CO2를 저감한 효과이며, 소나무 9427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고객들이 반납한 공병은 이니스프리의 제품 용기로 재탄생되거나 인테리어 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니스프리의 '공병 프리퀀시' 캠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경영을 선포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뚜기는 최근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건강한 식문화로 세계와 함께하는 오뚜기'를 발간하면서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더욱 앞선 식품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경영철학에 기반을 둔 활동과 계획을 제시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조직의 안정된 경영과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ESG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F&B 역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친환경 제품 매출 1000억 원 달성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5% 절감 △산업안전 보건경영 확립 등 올해 달성할 3대 핵심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5%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속해서 줄여 내년까지 268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소나무 2858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동원F&B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앤 '양반김 에코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샘물 제품의 페트병 경량화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 완전히 없앤 '노 플라스틱(No Plastic)' 선물세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동원F&B 관계자는 "ESG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러시아 유튜버의 소주 먹방.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러시아도 소주 홀릭

MZ 공략 하이트진로 수출 11%↑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가 소주에 빠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러시아 소주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1%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청포도에이슬' 등 과일 리큐르는 전년대비 40% 성장하면서 전체 소주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주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수출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트진로의 러시아 소주 수출량은 2017년부터 3년간 연평균 76% 성장했다. 특히, 과일 리큐르는 같은 기간동안 무려 169% 성장하며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독주인 보드카가 대세인 러시아 시장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하이트진로는 현지 MZ세대 집중 공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한다. 주류광고 규제가 엄격한 러시아 시장 특성을 고려, 영상과 SNS 등에서 간접광고를 진행했다. 한국 음식 먹방 콘셉트의 유튜버와 바텐더, 푸드 블로거 등을 포함한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해 MZ세대에 홍보했다.

하이트진로는 유통채널 확대에도 주력했다. 모스크바 현지 대형마트와 체인점을 집중 공략한 것.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유튜버 등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과 러시아 현지 마켓 내 제품 취급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여러 나라의 시장 변화를 주목해, 현지에 맞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경우 새로운 트렌드에 개방적인 MZ세대의 니즈에 맞춘 활동으로 K-소주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커머스의 새바람 '퀵커머스'

GS리테일 '우딜-주문' 론칭
쿠팡 '퀵딜리버리' 특허 출원
네이버, 풀필먼트 센터 확대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이 신세계로 윤곽이 잡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익일 배송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과 1시간 내 즉시 배달로 불리는 '퀵커머스'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빠른배송은 온라인 최강자인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 모두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분야다.

7월 GS홈쇼핑과 합병을 앞둔 GS리테일은 22일 편의점 GS25와 GS수퍼마켓의 배달 전용 주문 모바일 앱 '우딜-주문하기'를 론칭해 퀵커머스에 힘을 싣는다. 기존에는 고객이 GS25 상품을 배달 주문할때 '요기요'나 '카카오톡주문하기'를 통해 가능했고, 우딜을 통해 일부 배달에 나섰지만, 주문 플랫폼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우딜은 GS리테일 계열사에서 차후 다른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딜앱은 'GS25' 메뉴와 '우동(우리동네)마트' 메뉴를 통해 배달이 가능하다. 우선 GS25의 주문 가능 상품은 1100 여 종이고, 우동마트의 상품은 3500여 종이다. 우딜 외 '우친·배달하기' 앱도 별도로 운영된다. 우친앱은 GS리테일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 도보 배달자 전용 앱으로 현재 GS25와 GS슈퍼마켓 외에도 BBQ(비비큐), 마왕족발 등의 배달이 가능하다.

이베이 인수전에서 일찌감치 발을 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도 아마존과 협업을 앞두고 배송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마존 상품을 11번가에서 주문하고 배달을 맡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최근 익일 배송과 당일배송에 이어 퀵커머스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11번가는 2월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 스타트업 '바로고'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익일 배송 서비스인 '오늘주문 내일도착'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자체 물류센터를 활용해 자정부터 정오까지 주문한 상품을 주문 당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오늘주문 오늘도착'에 나섰다.

쿠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퀵커머스 진출도 저울질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는 다음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온라인으로 단독 중계해 현재 470만 명에 달하는 와우 회원 수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즉시 배송인 퀵커머스에도 눈독 들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퀵딜리버리'와 '퀵커머스', '큐딜리버리' 등의 특허를 출원했다. 최근 쿠팡이츠 분사와 맞물리며 퀵배달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서비스 중인 쿠팡이 보유한 도심 내 물류센터를 활용해 '배달의 민족'의 B마트나 요기요의 '요마트'와 같은 다크스토어에 진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이마트와 함께 이베이 인수에 나섰다 발을 뺄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는 자체 배송 인프라 강화에 돌입했다.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손잡고 곤지암에 이어 군포와 용인에 축구장 5개에 달하는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열고 물류 인프라를 확대한다. 새로운 센터는 택배 허브 터미널과 연계해 익일배송에 힘을 준다.

롯데마트의 '스마트 매장'과 '세미다크 스토어'를 통해 2시간 내 '바로배송'에 나서는 롯데쇼핑도 현재 8개인 세미다크 스토어를 연내 30개로 늘려 퀵커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뉴발란스-모베러웍스 협업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은 '뉴발란스'가 영캐주얼 의류 브랜드 '모베러웍스'와 협업한 팝업스토어 'SUMMER JOKE'를 영등포점 1층에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모베러웍스'는 '일'을 주제로 한 위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상품으로 MZ세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다. 이번 뉴발란스와의 협업을 통해 반팔 티셔츠, 셔츠 등 위트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상품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中 '6·18 쇼핑축제' 휩쓴 K뷰티

LG생활건강 매출 70% 성장
아모레퍼시픽·애경도 25%↑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축제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의 위력을 과시했다.

LG생활건강은 20일 마감한 중국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 축제'에서 티몰(Tmall) 기준으로 후, 숨, 오휘, 빌리프, VDL, CNP 등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70% 신장한 5억 800만 위안(약 893억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72% 올라 에스티로더, 랑콤, 라메르, 시세이도에 이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랭킹 5위에 올라섰다. 특히 후의 대표 인기 제품인 '천기단화현' 세트는 티몰 전체 카테고리 중 단일 제품 매출 기준으로 아이폰12, 그리에어컨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1위에 등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대표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군인 자음생 라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럭셔리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굳혔다. 마몽드 매출 역시 전년과 비교해 약 25% 올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왕홍 등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브랜드 대표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애경산업도 '티몰 국제 애경 플래그십스토어' 기준 전년 대비 2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은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커버 팩트'로 행사 기간에 22만 5000개가 팔려나갔다. 특히 AGE 20's와 중국 유명 왕홍인 비야와 함께 기획한 'AGE 20's 618 기획세트'는 준비 물량 2만 5000세트가 사전예약 기간에 완판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애경산업 측은 AGE 20's 에센스 커버 팩트가 올해 티몰 국제관 내 BB크림 부문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닥터자르트 역시 이번 축제에서 티몰 기준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약 1억2000만 위안(약 2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 예약판매 오픈 하루 만에 작년 '618 쇼핑축제' 전체 매출을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예약판매 기간 뷰티 브랜드 카테고리 기준 매출 순위 8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혜지 기자 heyji@

LG U+

시각장애인이 마음껏 책 읽는 세상
LG유플러스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매년 출간 도서 중 시각장애인용 도서, 단 5%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다양한 활동으로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 맹학교 5곳에 도서보조공학기기 기부
유플러스 희망도서관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변환 자원봉사
유플러스 희망도서

네이버 클로바와 함께 만든 U+ AI 스피커 2,000대 기부
유플러스 책 읽어주는 도서관

QR코드를 찍어
유플러스가 만드는 동화
풀버전을 만나보세요

'바이오·언택트·전기차' 코로나가 바꾼 韓 증시 주역들

2년간 시총 톱10 수성 6종목뿐
통신·철강·금융주 10위 밖으로
"팬데믹, 미래 산업 변화 가속도"

주식시장은 국가경제와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축소판과 같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시총 1위는 삼성전자다. 2000년 말 시총 1위를 꿰찬 뒤 20년간 몸값(시총)이 가장 비싼 상장사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코스피 '삼천피'(지수 3000) 시대를 연 원동력도 삼성전자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2, 3위 자리를 두고는 신구 세력 간 쟁탈전이 뜨겁다. 4년 여 가량 2위를 지키던 SK하이닉스를 카카오, 네이버, LG화학이 위협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총 2, 3위를 상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곧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 통신,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업 순으로 2위를 차지하며 당시 산업 지형을 가늠케 했던 것.

지금도 다르지 않다. 수년째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언택트·전기차'의 대결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시가총액 '톱10'자리를 지킨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등 6개 뿐이다.

반면 기존 '10대 종목'이었던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SK텔레콤 4개는 지난해 자리를 내줬다. 새롭게 진입한 종목은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지위는 압도적이다.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만 20%가 넘는다 '8만 전자'란 별칭을 얻으며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00조 원에 육박한다. 2006년 1월 시총이 100조 원을 넘어선 지 15년 만인 올해 1월 엔 500조 원을 넘기도 했다.

시총 2위 쟁탈전에선 구산업과 신산업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기억, 저장 기능)에 주력한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시스템반도체(논리, 연산 기능)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에선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샛별이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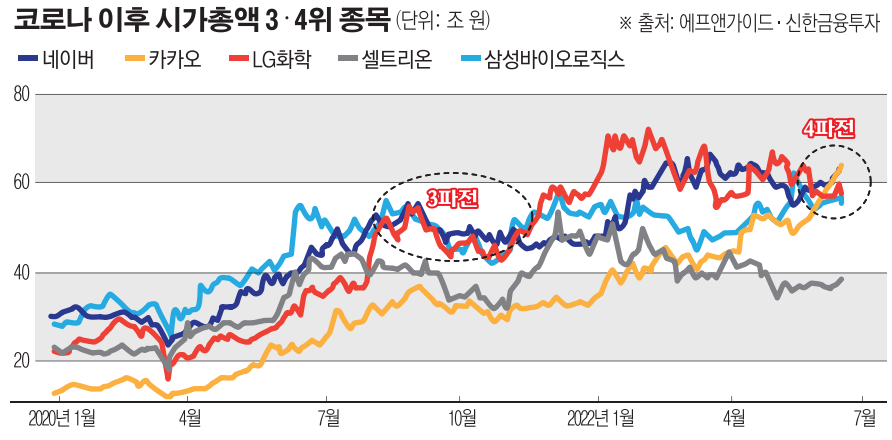
시총 5위인 LG화학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 두각을 보인다. 6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뿐 아니라 위탁 개발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총 1, 2위는 현재 주력 산업 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면서 "3위 자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팬데믹 위기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시켜 성장 섹터에서의 이종 산업(바이오, 언택트, 전기차) 간의 증시 주도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기영 기자 pgy@

코로나 이후 시가총액 3·4위 종목 (단위: 조 원)

※ 출처: 에프앤가이드·신한금융투자



카카오 시총 장중 70조 "목표 주가 20만원"

2위 SK하이닉스와 20조 차이
뱅크·페이 상장시 격차 더 좁혀

카카오가 21일 장중 한때 시가총액 70조 원을 넘어섰다. 2위인 SK하이닉스의 시총은 약 89조 원으로 카카오와의 격차는 2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이날 전 거래일과 같은 15만 50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68조 8096억 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는 88조8162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가 하반기에도 외형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광고, 상거래(커머스), 유료콘텐츠 등 주요 비즈니스들의 기업 가치 상승을 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과 자회사 등의 보유 지분 가치를 합산하는 사업별 평가가치 합산(SOTP)의 방식으로 목표주가를 산정했다. 카카오톡 플랫폼 가치(81조9800억 원)와 자산가치(5조1560억 원)를 합쳐 카카오 SOTP 가치를 87조1360억 원으로 평가했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톡 플랫폼 가치를 산정하면서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장외거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40조 원으로 평가하고 카카오 보유 지분(31.8%) 가치를 12조7120억 원으로 삼았다. 자산가치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카카오의 보유 지분 가치를 3조9720억 원으로 평가했다.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30조 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카카오 보유 지분(13.2%)을 반영했다. 두나무 기업가치 30조 원은 두나무의 올해 예상순이익(2조 원)에 국내외 가상화폐 플랫폼의 주가수익비율(PER) 20배를 일부 할인한 15배를 적용한 값이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은 카카오 금융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잠재력을 시장에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이들 기업의 공모 흥행 시 카카오 전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목표주가(20만 원)를 반영할 경우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89조 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현재 SK하이닉스의 시총(약 89조 원)과 비슷한 규모다.

하나금융투자도 카카오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확한 추정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 자회사의 최근 예상되는 상장가치 및 투자유치 시 (평가)가치를 감안한 지분가치는 3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회사 지분가치에 30% 수준의 할인율을 반영해 적정주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대우건설 이번엔 새주인 찾을까

KDB인베스트, 25일 매각 본입찰
DS네트웍스·중흥그룹 유력 후보

대우건설이 3년 만에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부동산개발회사인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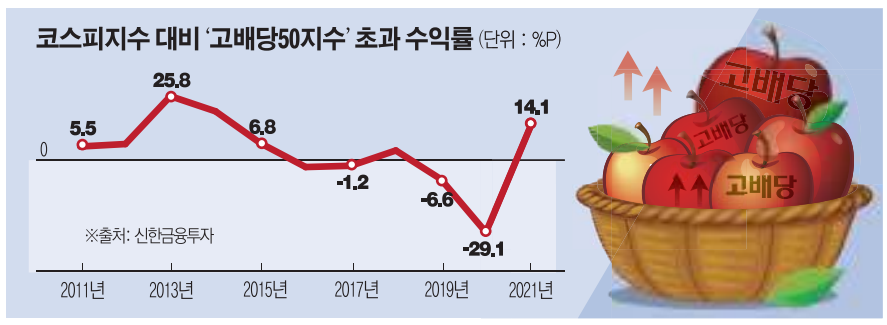
21일 대우건설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오는 25일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 일정을 시작한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를 통해 인수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은 25일까지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KDB인베스트먼트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다. 매각 가격은 1조8000억~2조 원대로 추정된다. 대우건설 시가총액인 약 3조6000억 원의 50.75%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20~30%를 더한 가격이다.

중견건설사인 중흥그룹과 부동산 시행업체인 DS네트웍스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DS네트웍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인프라 전문 투자사 IPM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중흥그룹은 계열사인 중흥건설이 주축이 돼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흥그룹은 자기자본만으로도 대우건설 인수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재무적투자자(FI)나 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대우건설과 인수시 두 회사 모두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커지는 변동성, 배당주 투자로 대비하라

고배당50 지수 올해 27% 수익
중간배당 58곳…종전 기록 경신



돈 불리기 참 어려운 시대다. 시중은행이 너도나도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가 연 0%대로 떨어졌다. 은행에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어도 1년에 이자 100만 원을 벌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오른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에 손을 대기도 주저된다. 전문가들은 마국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규모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납작 엎드리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배당주가 대안으로 재주목받는 배경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올해 들어 26.8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 200 고배당지수도 18.6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코스피 12.48%를 웃돈다.

2016~2020년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연평균 -6.9%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엔 코스피지수 대비 수익률 격차가 -29.1%포인트까지 떨어져 '방어주' 역할도 하지 못했다.

중간배당주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올해 중간(반기)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들은 모두 58곳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최대치(49곳)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중간배당을 공시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중간배당을 해마다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중간배당을 하지 않았다. S-oil도 중간배당을 재개했다. 현대중공업지주, LG유플러스, 케이씨씨글라스, 이노션, 씨젠, 하나머티리얼즈 등도 중간배당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배당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와 같이 배당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배당주는 자본이득과 배당이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은 이익 구조가 탄탄하며 향후 실적에도 자신이 있는 기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회계연도 중에 배당했다가 이후 경영 상황이 급변해 손실이 발생하면 큰 낭패를 입을 수 있는 걱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주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말 그대로 탄탄한 회사들이지만 그래서 급격한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가능성도 작다는 의미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테이퍼링이 이뤄질 때 장기 금리는 내려간다"며 "이 같은 시기에 배당주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뱅키스 모의투자대회' 시상
수익률 445% 홍익대생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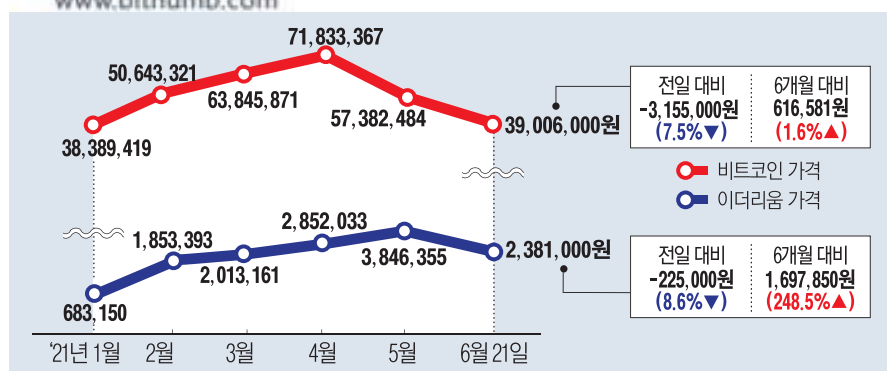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이 '제3회 뱅키스(BanKIS)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445%의 투자수익률로 국내리그 1위를 차지한 최수민 홍익대학교 학생을 비롯해 2위 전성민 명지대학교 학생, 3위 허동현 중앙대학교 학생, 해외리그 1위를 차지한 서대한 숭실대학교 학생, 2위 박세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3위 장근 숭실대학교 학생 등 18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 부사장은 "뱅키스 모의투자대회는 2030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경험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참여해 보고 싶은 명망있는 투자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jin2002@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6월 2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597,500	-62,500 (9.5%▼)	이오스	4,784	-491 (9.3%▼)
리플	824	-69 (7.7%▼)	트론	74	-7 (8.6%▼)
라이트코인	165,200	-15,600 (8.6%▼)	스텔라루멘	321	-24 (7.0%▼)
에이다	1,568	-89 (5.4%▼)	비트코인에스브이	167,000	-15,400 (8.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 '현금부자들 잔치' 되나

'전농9' 전용 84㎡ 10억 넘어 '흑석2' '봉천13'도 지역 최고가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막혀 서민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
전문가들 "중도금 대출 기준, 분양가 상승에 맞춰 현실화해야"

공공재개발(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를 제치고 지역 최고가에 분양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기업을 참여시킨 공공재개발 단지에서조차 서민은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2011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농9구역은 올 4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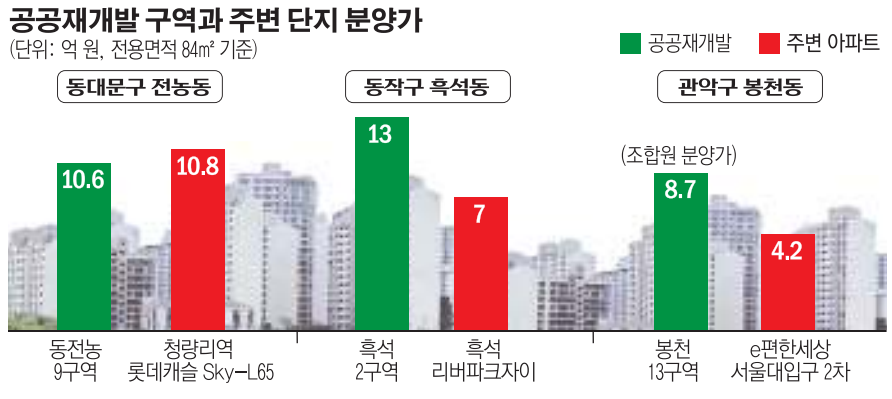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분양가를 포함해 전농9구역 재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LH가 예상하는 전농9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3087만 원.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10억69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인근 용두동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인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84㎡형 분양가(최고 9만6700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비싼 값이다. 지금까지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아파트인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전용 84㎡형 기준 최고 10억8470만 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다.

전농9구역이 이렇게 후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참여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건축비·토지비 원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개발 수익성을 높여줘 재개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공재개발 구역과 주변 단지 분양가
(단위: 억 원, 전용면적 84㎡ 기준)



공공재개발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분양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HUG가 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주변 집값에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돼서다.

높은 분양가를 보장받은 공공재개발 구역은 전농9구역 뿐이 아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재개발 첫 사업장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3.3㎡당 최고 4224만 원, 전용 84㎡형 기준 13억 원에 이르는 분양가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흑석동에서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 가운데서 가장 비싼 분양가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도 전용 84㎡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일반분양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10% 넘게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도 약 8억7600만 원에 책정돼서다. 2017년 분양했던 인근 봉천12-2구역(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보다 조합원 분양가도 두 배가량 높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개발 조합 수익성을 좋아지지만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이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 X 60%) 이상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선 공공재개발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공공재개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대출 규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가 도입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40% 넘게 상승했다. 공공재개발에서 보듯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마저 민간아파트를 쫓아 올라가는 추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9억 원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현실에 맞게 지금보다 대출 규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에선 꿈도 못 꿔" 현실 외면한 초장기 정책모기지

내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대출상품' 도입
"집값 6억 이하만, 무주택자 지원 효과 크지 않을 것"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나온다. 하지만 이 상품의 대출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에 한참 못 미친다. 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안을 적용하면 대출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금액은 더 줄어드는 만큼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대출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장기 모기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40년 만기 상품 기준 연이율 2.9%로 최대 3억6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희망자 연소득도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택소득제한도 없지만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도 최저 3%에서 최고 3.84%로 보금자리론보다 1% 포인트가량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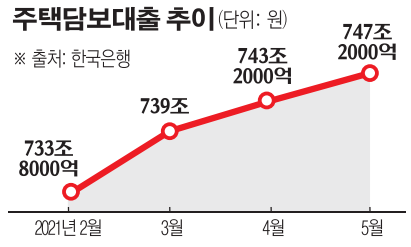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이었지만 이번 상품은 10년이 더 늘어났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 지원인 셈이다.

하지만 40년 초장기 모기지 대출상품 이용 기준 '6억 원'은 서울 평균 집값보다 훨씬 낮아 무주택자 지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도 8억 8800만 원을 돌파했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을 포함한 종합 주택 매매가격도 8억3000만 원에 달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6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즉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은 서울 내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40년 초장기 모기지 개요

상품	보금자리론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제한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LTV 및 DTI	LTV: 70%, DTI: 60%
대출 금리	2.9%(인터넷 기준)

주택담보대출 추이(단위: 원)
※ 출처: 한국은행



보금자리론 대신 규제가 덜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을 이용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지원 효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DSR 40% 규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 때문에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 내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DSR 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이 주관하는 만큼 현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DSR 규제에 막혀 적격대출 최대 한도인 5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모기지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지원으로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만약 대출부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불안 요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무주택자 LTV 최대 60%
청년 전세보증 한도 '1억'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을 확대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직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 1000억 원)도 폐지돼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차와 4차 사전청약 시기는 각각 11월과 12월로 잡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원베일리 이을 하반기 '강남 로또단지' 어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잠원 '신반포 메이플자이' 주목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흥행을 이어갈 또다른 '강남 로또 단지'가 연내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는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재건축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35층 5개 동 641가구로 규모는 크지 않다. 일반분양 물량도 총 263가구로 전용면적별로 △59㎡(8가구) △84㎡(216가구) △107㎡(17가구) △137㎡(12가구) △191㎡(1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85㎡ 초과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된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주목받는 건 반포 대장주들에 둘러싸인 뛰어난 입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서쪽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북쪽에 아크로 리버파크, 동쪽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와 이웃한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반포초·중, 계성초, 신반포중도 단지 바로 옆에 있다. 길 건너 맞은 편에는 세화고·세화여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래미안 원베일리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3년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잔금을 자력으로 치를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아파트)도 이르면 올 하반기 분양한다. 총 3329가구 규모로 23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가깝다.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개요
(옛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

위치	가구수(가구)	일반분양 물량(가구)	전용면적(㎡)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1	263	59~191

※ 출처: 삼성물산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분양 대기 중이다. 총 1만2032가구로 47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檢 주요 수사팀 '대규모 물갈이' 예고

박범계 "역대 최대"… 변필건·이정섭 등 거취 주목
일각 "직제개편안, 정권수사팀 인사이동 위한 설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뒤 김 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직제개편안도 미운털 박힌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을 위한 설계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는다. 이는 2019년 12월 도입된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부임한 변 부장과 이 부장, 이상직 의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규정상 인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할 수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른 '친정권 검사'의 보직 이동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해 6대 범죄 수사를 독점하고, 일선 지검은 형사부 가운데 대체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말(末)부'가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지검 형사부 말석 부장만 친정권 검사로 채우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일마다 서울까지 장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용 기자 deep@

김동식 구조대장 영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경기 광주소방서)의 영결식이 21일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운구 행렬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권력형 성범죄"… 오 전 시장 "우발적 기습추행"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치상죄를 부인했다. 그는 또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용 기자 deep@

관리사무소 갑질, 지자체가 형사고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행위 중단 요구·조사의뢰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을 하면 지자체가 대신 조사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처지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갑질 발생 시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바로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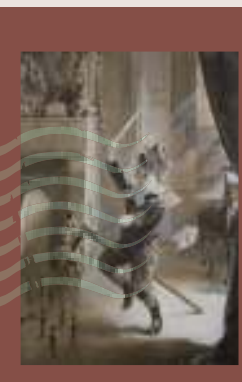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계약 해지 등을 압박 수단으로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속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고나 징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우리 딸을 토닥여줄 엄마의 그림 편지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엄마의 따뜻한 편지를 받고 싶은 딸들에게
누군가의 딸이었던 엄마들에게
모두가 한 편의 작품 같은 우리들에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그림 속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이 책을 읽으며 이 세상의 많은 '느루'들이 엄마의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 김영훈(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 안노라 지음 | 18,000원 | 320쪽

도서출판 해토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을 문화·경제 중심지로 키울 것”

서울 동맥을 가다㉒

이 동 진 도봉구청장

국내 최초 실내대중음악공연장
‘낙후된 도시’ 이미지 탈피하고
문화·예술 분야 선도 자치구로

신경제중심지 입주 기업 수용할
시드큐브 창동 지난해 11월 착공
‘숙원’ 창동민자역사도 공사 재개

21일 서울 도봉구 청사에서 이동진 구청장이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도봉구가 세계적인 음악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10여 년간 추진해온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그는 변화를 강조했다. 서울의 변방, 낙후한 도시라는 그간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 구청장은 문화를 입히려고 노력했다. 그 중심에는 ‘서울아레나’가 있다.

“창동 주변에 가용부지가 많았어요. 서울시는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봉구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아레나를 제안했습니다.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실내 대중음악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수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창동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죠. 국내 최초입니다.”

그는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300여 개의 문화예술 관련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시드큐브 창동’은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2024~2025년께 완공되는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한 창동신경제중심지가 조성되면 도봉구가 세계적인 음악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민자역사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5월 서울회생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아레나나 문화산업단지 조성, GTX-C노선 확정 등 창동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진 덕이죠.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매력이 생긴 겁니다.”

도봉구는 올해도 굵직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트센터 건립과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바로 그것. 이 구청장은 클래식을 공연할 수 있는 아트센터를 지어 ‘문화를 담은 도봉’에 정점을 찍을 계획이다. 이미 3305㎡(약 1000평)의 용지를 마련했고 객석은 600~700석 규모다. 서울시 지원을 일부 받아 시비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주민 중심의 주택공급사업이라는 게 특징이죠. 기존에는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떠났죠. 재입주율이 20%가 안 돼요. 기존 살던 사람은 다 밀려나고 돈 가진 사람이 새롭게 입주했는데 이번 사업은 입주율을 최대로 높이려고 합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입주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죠. 동의율이 7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자 이 구청장이 회장을 맡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금고 선정 시 ‘ESG 평가항목’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나오면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고요. 과거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 건강한 지배구조가 새로운 투자 기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변화를 주도해온 이 구청장. 아쉬운 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임기가 끝난 이후의 삶도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박은평 기자 pepe@

기업·시민 함께하는 지속가능 ESG경영 모색

서울시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토론회’ 내일 개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토론회를 23일 개최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기업에서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동참해 각자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 ‘기업의 ESG 경영과 환경경영’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녹색위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하는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와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이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시민·기업·행정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가 ‘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지속할 메가트렌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뒤 참가자들 간 전체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현장 참여 대신 서울시 유튜브에서 ‘라이브 서울’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패널들의 각 발표 자료는 토론회 당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기업에서 친환경 경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다. ESG 경영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민과 기업, 행정이 모여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해 보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18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이건화 관악경찰서장(왼쪽부터), 박준희 관악구청장, 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관악구

양천구, 취약계층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서울 양천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찾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고 21일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방청 통계 연보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40% 이상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희생됐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은 대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구에서는 2019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올해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3곳, 장애인 복지시설 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1곳, 사회복지관 7곳 등 총 15곳을 선정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특성과 1일 최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보관함 38개를 설치하고 마스크 380개를 두기로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대형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관악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하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관악경찰서와 의료지원체계 구축

서울 관악구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뒤 서울 관악경찰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18일 관악구청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관악경찰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진료, 진단 서류 발급,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적극 보호를 위한 세 기관의 협업과 공동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22개 진료과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의료적 자문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구청 및 경찰서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평 기자 pepe@

금천구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23~25일 96개 업체 참여

서울 금천구는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2021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올해로 6번째 열리는 G밸리 수출상담회는 G밸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와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년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마련된 부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미디어콘텐츠 분야 등 분야의 66개 업체와 해외 바이어 3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에게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통역 지원, 제품 샘플 배송 등 상담 전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왕홍 생방송 프로모션, 오프라인 쇼룸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G밸리 소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 남산공원, 8월부터 관광버스 진입 전면통제

서울시는 8월부터 남산공원에 경유 관광버스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체 관광버스로 남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남산예장공원에서 하차한 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인 ‘녹색순환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녹색순환버스 03번 노선과 04번 노선을 통합하고, 02번 노선과 04번 노선 버스증차를 통해 운행횟수를 늘려 배차간격과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남산공원을 보다 청정하고 맑은 친환경 공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남산공원 내 경유 관광버스 진입 제한, 환승 주차장 신축,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해 유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딱! 2가지 질문
딱! 필요한 보장

단 2가지 질문으로 가입은 누구나 쉽게
더 필요한 보장으로 마음은 편안하게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장윤정

| 갱신형, 무배당 |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

가입 질문 (고지사항)

Q1.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소견(입원, 수술, 재검사) 유무
Q2.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 수술, 입원력 유무

✓ 나이가 많아도,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
· 단, 1형(투패스형) 가입시에 한하여, 해당조건 충족시 가능

✓ 질병 진단시 생활비 지급 / 암보장은 물론 뇌, 심장 보장 강화
· 단, 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 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 보장 신설 (치료 담보 강화)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최초 1회한)

◆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생명 FC를 통해 상담해보세요

모두가 이로운 보험
NH농협생명

보험가입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다릅니다.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이 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5세까지보장, 일부특약제외). ※이 상품의 1형(투패스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고연령자 포함, 가입나이는 상품설명서 참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2형(일반가입형)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NH농협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1-01794호(2021-06-08~2022-06-07)**

“층간소음, 법적 기준보다 소비자만족 맞추려 노력”

안계현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건축주택연구팀장

코로나19 이후 TFT 구성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 ’ 개발
“사람마다 청감 달라”…1dB 줄이려면 30% 성능 개선 필요

안계현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건축주택연구팀장이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회의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 ’을 개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재택 근무가 일상화했고,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집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머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공간, 생산 활동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집의 가치가 확장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고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주거 환경 변화에 건설사 연구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건설사 연구원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공사 현장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현대건설 안계현 기술연구원 건축주택연구팀장(책임연구원)을 만나 코로나 시대 건설사 연구원들의 일상과 고민 등을 들여다봤다.

안 팀장이 속한 현대건설 기술연구소는 최근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 ’을 개발했다. 타 건설사들이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층간소음 테스트를 측정하고 인증받는 것과 달리 현대건설은 직접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았다. 건설사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획득한 것이다.

안 팀장은 “요즘 우리 연구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층간소음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나 우리도 작년 5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며 “그 일차적인 결과물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은 다르다”며 “그동안에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맞추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소비자 만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 층간소음 1데시벨(dB)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 30%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팀원들 모두가 스트레스로 고생을 많이 했다. 안 팀장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층간소음 시스템을 적용한 청감실험을 했다. 직원들마다 일정 소음에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다 다르더라”면서 “소리라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크다 보니 (소음 차단 정도를)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 기쁨도 맛봤다. 그는 “팀원들이 1년간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여름휴가도 못 갔다. 고생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고, 우수사원상을 TFT 전체에 줬다. 누구 하나에게 집중된 상이 아니라 팀으로 받은 상이라서 그 의미도 더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에 개발한 층간소음 서비스는 이르면 3분기 말, 늦어도 4분기에는 현대건설 브랜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안 팀장은 “이번 서비스에 ‘ I ’이 붙은 건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많은 숙제를 개선해서 ‘Ⅱ’, ‘Ⅲ’의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팀장이 기술연구원으로 옮긴 지 1년 6개월가량 흘렀다. 이전에는 건설 현장이나 사업본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덕분에 건설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연구·개발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다. 단순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먼 미래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연구원으로 옮겨와 건설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진짜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걸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다”면서도 “너무 현업만 생각하면 당장에 필요한 기술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에는 현실화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먼 미래에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맞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산림청 차장 남태헌 前 정책관

제31대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임명됐다.

남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25년간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외 협상력을 갖춘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이정희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임기 만료된 이정희 공정위 비상임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이 연임됐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이정희 비상임위원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중소벤처 및 유통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관련 분야 등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미샤’ 에이블씨엔씨 김유진 대표

에이블씨엔씨는 IMM오퍼레이션즈그룹 김유진 대표를 대표집행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2009년 IMM프라이빗에쿼티에 합류해 할리스에프앤비, 레진코믹스, 태림포장 등의 거래를 주도했다. 2017년부터 할리스 대표로 기업을 직접 경영하다가 지난해 KG그룹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그는 다시 IMM프라이빗에쿼티에 복귀해 IMM오퍼레이션즈그룹 대표를 맡으며 에이블씨엔씨, 제뉴원사이언스 오퍼레이션 작업을 맡았다.

김혜지 기자 heyji@

“중기부 태어난 곳은 대전”
권칠승 장관, 이전 앞두고 감사 뜻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서 소나무 기념식수 후 허태정 대전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태어난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시민들 애정 잊지 않겠습니다.”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장관이 대전시장과 지역 대표 단체장들을 만나 세종시 청사 이전에 따른 작별의 아쉬운 마음을 전달했다. 행사는 7월 세종시로 청사 이전을 앞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그리고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데 대전시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으며 중기부가 태어난 곳은 대전”이라며 “세종시로 청사 이전을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 모두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와 중기부 간 발전적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베이조스의 지구 귀환을 막아라”
美 청원 사이트 5만여명 서명…“지구는 억만장자 원치 않는다”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지구 복귀를 막자는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 베이조스 CEO의 지구 귀환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두 건의 청원 글은 베이조스 CEO가 7일 “7월 20일 우주탐사 업체 블루오리진의 첫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올라왔으며 이후 서명이 쇄도했다.

‘제프 베이조스의 지구 귀환을 막아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만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억만장자는 지구 또는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후자를 결정한다면 거기(우주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지구는 제프나 빌(게이츠), 일론(머스크),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들을 원치 않는다”며 지지 배경을 댓글에 달았다.

‘제프 베이조스의 지구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 글에는 1만9000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베이조스를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작심한 사악한 지배자”라며 “인류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적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구자열 무역협회장, 해운협회 찾아 수출입 물류, 선·하주간 상생 논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21일 한국해운협회를 방문해 정태순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해운 대란으로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선·하주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구 회장, 정 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부음

▲**김동운** 씨 별세, **김구환**(유진투자증권 소비자보호팀장)·**정흔**(GS홈쇼핑)·**영현**(중국무석연합교회 목사) 씨 부친상 = 21일,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3일 오전 7시 40분, 055-750-8448.

▲**정은상**(전 언주초교 교사) 씨 별세, **이순우** 씨 남편상, **정민형**(리모와코리아 매니저)·**민준**(마스터스인터내셔널 부장) 씨 부친상, **김미영**(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 지배인)·**최은주** 씨 시부상, **정운상**(자영업)·**용상**(금성텔레콤 사장)·**도상**(언어과학 대표이사)·**덕상**(올가니카 대표이사) 씨 형님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14

▲**원종호** 씨 별세, **차정옥** 씨 남편상, **원형준**·**혜신**·**형석**(바이오스틸코리아 대표이사·대한컬링연맹 이사) 씨 부친상 =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오전 11시, 031-900-0444

▲**김진헌** 씨 별세, **김승룡**(전 옥천문화원장, ㈜세림 사장) 씨 부친상 = 21일, 옥천성모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43-733-0808

▲**조영숙** 씨 별세, **이태준**(코스트코 코리아 근무)·**혜진**(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씨 모친상 = 20일, 의정부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031-844-4040

인사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성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승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형철

◆**조달청** ◇서기관 승진 △전자조달기획과 임해영 △구매총괄과 김수열 △원자재비축과 김해영 ◇기술서기관 승진 △구매총괄과 김동현

◆**서울시** ◇국장급 3급 승진자 내정 △이해선 기획담당관 △이동률 환경정책과장 △곽종빈 자치행정과장 △김명주 재무과장 △박진순 안전총괄과장 △김정호 주책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PI부문 대표 부사장 강길환 ◇선임 △디지털플랫폼본부장 이사대우 김세훈

◆**아시아투데이** △탐사보도국 공기업부장(부국장대우) 조동석

추창근 칼럼

주필

'미국의 귀환', 安美經中 설 땅 없다

손에 든 패가 뻔히 읽히는 양다리 걸치기의 '전략적 모호성'만큼 위험한 외교도 없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느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블록과 안보의 결합 구도는 분명 우리의 엄중한 위기다. 그럼에도 새로운 동맹체제에서 우리가 종속적 위치를 벗어나 전략자산을 독립적 상수(常數)로 만들고 중심의 위상을 구축한다면 다시 번영과 튼튼한 안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성(一聲)이다. 그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길에 미국의 신뢰를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은 더 구체화됐다. G7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반중(反中) 연대 선언문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강력 반대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허용돼야 한다. 신장 위구르족 등의 강제노동을 규탄한다. 코로나19 기원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민감한 이슈를 모두 건드리면서 직접 비판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도 합의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저소득 국가 인프라 개발에 40조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는 서방 진영의 파트너십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중국의 경제영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는 육상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잇고, 해상으로 동남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옛 '실크로드'의 재현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창해 그동안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세계 100여국에 영향력을 키워 왔다.

바이든은 더 나갔다. G7 정상회의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시동을 걸었다. NATO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동맹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냉전시대 구(舊)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유럽방위망인 NATO가 중국을 집단안보의 전략 개념에 넣기로 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무력충돌까지는 아니어도,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가와 전쟁을 불러온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더 빠져드는 양상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한다. "소집단의 사이비 다자주의가 중국 내정에 멋대로 간섭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서방국들의 연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중국과의 대립각을 여전히 불편해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계산법이 다른 현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극(一極) 패권에 대한 위협을 용납않겠다는 중국 고립화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진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지역 대표의 성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이 사실상 G8의 위상을 과시한 역대급 외교성과라며 추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한가하고 천박하다. 국민들은 오히려 그것이 반중 국제질서 구축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요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적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경제·무역·기술·안보를 한데 묶는 전방위 동맹의 구축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 안보대화(쿼드)와 한국·베트남·뉴질랜드도 포괄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도 마찬가지다.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변혁이다. 두 강대국의 충돌과 대립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좌표도 흔들리는 엄중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힘의 논리로 피아(彼我)를 가르는 질서는 싫든 좋든 우리의 선택을 강요한다.

미국은 G7 회의에 앞서, 반도체와 배터리·희토류·바이오 등 4대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과 유럽, 일본, 대만 등과 손잡고 중국에 휘둘렸던 공급사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의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도 제안했다. 우리 삼성과 SK, LG 등 대표 기업들이 비중 있는 협력 파트너로 적시돼 있다. 한국에 동맹의 역할과 책임, 반중 연대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우리 기업과 기술을 절실한 '전략자산'으로 평가한 것이다.

냉엄한 현실이다. 불가피한 선택의 다른 여지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인권가치의 공존 대상이 어디인지, 안보와 경제의 미래를 누구와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를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어정쩡한 전략은 더 이상 설땅이 없어진다.

손에 든 패가 뻔히 읽히는 양다리 걸치기의 '전략적 모호성'만큼 위험한 외교도 없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느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블록과 안보의 결합 구도는 분명 우리의 엄중한 위기다. 그럼에도 새로운 동맹체제에서 우리가 종속적 위치를 벗어나 전략자산을 독립적 상수(常數)로 만들고 중심의 위상을 구축한다면 다시 번영과 튼튼한 안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다.

정책발언대

박광석
기상청장

여름철 구름 속에 숨은 자객, 벼락

"인동현(仁同縣) 사람 함열감무(咸悅監務) 고상겸(高尙謙)의 아내 김 씨가 벼락을 맞았다."

인동현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 살고 있던 지방관인 감무의 아내가 벼락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태종 6년, 서기 1406년 5월 20일의 내용으로, 조선왕조실록 내 천둥, 번개, 벼락에 관한 1,000여 건의 기록 중 하나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벼락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벼락은 호우, 태풍 등에 비해 재산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벼락은 연중 나타나지만, 5월부터 기록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6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되는데, 이는 오늘날과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번개 혹은 벼락을 어떻게 관측하고 있을까. 대기 중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데, 대기 중 전하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불꽃을 동반한 급격한 방전(放電) 현상을 번개라 하고 구름에서 지면으로 발생하는 방전을 '벼락 또는 낙뢰(落雷)'라 한다. 또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볼트의 전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천둥'이라 한다.

기상청은 낙뢰 관측을 위해 1987년부터 자동화된 관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교체된 '3세대 낙뢰관측시스템'은 전국에 설치된 21개의 센서로 구성되며, 낙뢰 발생 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각 센서 간 수신시간 차를 이용하여 낙뢰 발생 지점을 알아낸다. 수집된 낙뢰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누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매년 우리나라 낙뢰 발생 현황을 '연보'로 발간하고 기상청 행정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낙뢰에 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올해 발간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8만3000회의 낙뢰가 관측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약 11만8000회보다 30% 적었으나, 2019년의 약 6만6000회에 대비해서 26% 정도 많이 관측되었다. 특히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8월로 3만5332회(약 43%)가 관측되었으며 연간 낙뢰의 약 73%가 여름(6~8월)에 집중되었다.

기상청은 낙뢰에 대비하고자 사용자 위치기반의 '낙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상레이더센터 누리집에서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 혹은 관심지점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 안에 낙뢰가 발생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캠핑 등 야외활동 이전에 날씨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낙뢰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야외에서 낙뢰를 만났을 때에는 자동차, 건물 등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행 중에는 암벽이나 키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저지대로 이동해야 하고, 골프, 낚시 등의 활동에서는 장비를 멀리하고 차량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야외활동 중에도 기상청이 제공하는 낙뢰 정보를 통해 낙뢰 발생을 실시간 파악하여 사전에 대피함으로써 최소한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는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수첩

곽진산 금융부/jinsan@

이자 '1만 원'이 불법인 시장

"비대면 50 빌립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A에 급전(급하게 쓸 돈) 문의가 빗발친다. 급전은 신용등급이나 기존 대출액 등 제도권 금융사가 고려하는 항목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급전에 달라붙는 이자도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종의 '시세'가 정해져 있다.

물론 대부업체가 이 시세를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기에 표본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 한 대출자는 "50만 원 대출을 기준으로 70만 원을 냈다"고 했다. 이자 자체는 20만 원으로 급전에 대한 대가로는 엄청 많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대출 수요자들의 생각이다. 이 대출을 한 달 만기로 규정하면 연 이자율이 480.0%이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무색한 숫자가 등장한다.

만약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공급자가 이자를 '1만 원' 받으면 연 이자율이 24.0%이다. 최근 개정된 법정금리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된다. 연 금리 20% 기준에 따르면 50만 원은 이자로 8000원을 받아야 연 이자율 기준을 지킬 수 있다. 당연히 8000원 받자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전 시장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대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고 이마저도 개인은 쳐다보기 어려운 돈이다. 그런 곳에서 수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연 이자율' 기준이 적용될 리 만무하다. 누구는 480%의 이자를 감수해야만 5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은 포털사이트에 급전 대출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과 그렇지 않은 금융시장을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늘 남는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선진화되고 표적 분석을 통해 개인 대출의 요건을 더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세상이 오더라도 누구는 생존을 위해 50만 원을 당장 빌려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점차 많은 사람을 포용했으나, 언제나 이들을 외면해 왔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펠릭스 클라인 명언

"근본적인 수학 탐구에는 마지막 종착점이 없으며, 최초의 출발점도 없다."

독일의 수학자. 기하학·방정식론·함수론·역학 등에 다채로운 업적을 남겼다. 군론(群論)의 입장에서 기하학을 분류하고 기하학에 새로운 장을 연 '에를랑겐 목록'과, 복소변수함수론의 한 첨단이 되는 '오토모르프함수'의 연구가 특히 유명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49~1925.

☆ 고사성어 / 개물성무(開物成務)

만물 또는 사물이 시작되어 완수됨을 이르는 말.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그것을 실지로 행하여 성공함을 뜻한다. 주역(周易) 계사상(繫辭上)에 나온다. "역이란 사물을 열어주고 일을 이루어 천하의 모든 도를 포괄하는 것이다[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이 의미가 후에 확대되어 문명을 열고 이루어가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 시사상식 / 마이데이터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개인 계좌정보나 대출, 카드, 보험, 투자 등)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각종 기관이나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속담 / 큰 북에서 큰 소리 난다

크고 훌륭한 데서라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딸 바보

딸이 "아빠,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쓸 수 있어요?"라고 묻자 아빠가 "당근이지. 근데 뭘 써 줘?"라고 물었다. 딸의 요구. "그럼 이 성적표에 아빠 이름만 써 주세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 정치경제부 (02)799-2663 | 사회경제부 (02)799-2612 |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 금융부 (02)799-2665 | 부동산부 (02)799-2637 |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OTT 시장 컨트롤타워 급하다

데스크칼럼

최 영 희
IT중소기업부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0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OTT를 보는 셈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로 12일 0시부터 'U+모바일 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두 회사의 입장은 모두 강경하다.

LG유플러스는 CJ ENM 측이 내놓은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전년 대비 2019년에는 9%, 2020년에는 24% 사용료를 인상했는데 올해는 175%를 요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CJ ENM은 IPTV와 U+모바일 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는 입장이다. U+모바일 TV가 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 대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CJ ENM에 이어 지상파가 콘텐츠값을 올려 받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OTT를 규율하는 법은 없다. 여러 부처에서 법제화 시도가 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TT를 규율하는 법이 없으니 기존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2015년 지상파 3사가 U+모바일 tv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지난달 KBS N플러스도 송출 중단했을 때도 방통위는 나서지 않았다. 2개월 전인 4월 말 디즈니가 토종 OTT인 웨이브에서 관련 콘텐츠를 뺄 때도 사업자 간 계약이라며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아니던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자기 부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제각각 법제화 시도는 빨리 그만둬야 한다. 청와대 주도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OTT 정책협의회' 역시 주도적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소비자를 위한, 그리고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며 시장 파이가 커지는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제작사 MGM 인수에 나섰다. 미국 통신·미디어 그룹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OTT 업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전 세계 가입자가 각각 2억 7000만 명, 1억여 명에 이른다.

정부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사이, 글로벌 경쟁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규제를 할 거면 확실하게, 시장을 살리려면 명쾌한 기준과 진흥책을 내놔야 할 시기다. 더는 늦출 수 없다.

che@

사설

'델타변이' 확산 속 거리두기 완화, 중대 기로다

코로나19의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된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1차 30%에 이르고, 2차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강제적 방역의 고삐를 푸는 조치다. 확진자 수도 21일 0시 기준 357명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점차 잦아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델타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1차 80%, 2차 60%를 넘은 영국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1만 명 넘게 나왔다.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들 다수가 델타변이 환자라고 한다.

델타변이는 작년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 개국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감염사례가 아직 150여 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키운다. "델타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종으로, 올가을 다시 대유행을 가져오면서 방역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나왔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종전 4명에서 6명까지,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계 가족 모임에도 사실상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국내 입국 시 격리도 면제된다. 학교는 2학기부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운용된다.

방역에 큰 지장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우선 국민들이 끝없는 모임 제한과 거리두기 통제에 너무 지쳐 있고, 일상생활 회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도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문제는 방역의 빈틈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자율적 방역에 방점을 찍고, 수칙을 어기는 경우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자율적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효과는 솔직히 의문이다. 긴장감을 놓으면 예기치 못한 감염확산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변이 바이러스에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코로나 극복의 갈림길이다. 델타변이의 유행을 막지 못하면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점검과 백신 접종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델타변이의 감염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우되는 흡연자의 선택

유 현 희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상품이다. 미국 식약처에서 기존 궐련보다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담배가 해로운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담배에 '위험저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로 유명한 FDA의 허가를 받았다니 신뢰가 가는 한편으로 머금는 담배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담배 유해성 논란은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조선 중기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을 통해 담배의 5가지 유익한 점과 10가지 해로운 점을 다뤘다. "담배는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는 귀와 눈을 해치며 노화를 앞당긴다"고 성호사설에 기록돼 있다. 5가지 유익한 점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것" 등이 포함됐다. 담배의 장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익은 결론적으로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에서도 근래 들어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한층 조이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60%를 훌쩍 넘던 흡연율은 2000년대 들어서며 매년 낮아져 2019년에는 20.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미 담배라는 기호식품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규제의 틀을 씌우니 부작용도 이어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규제하니 가향담배 시장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다. 흡연구역을 없애고 거리 흡연 시 과징금을 부과하자 흡연자들은 보이지 않는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어 죄인처럼 담배를 피운다. 주택가의 간접흡연 피해가 커진 것은 물론이다.

유해성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없다. 미국 FDA가 덜 해로운 담배를 굳이 지정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로운 담배이지만 무조건 막기보다 덜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 담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흡연의 유해성 중 대표적인 것이 간접흡연 및 냄새로 인한 타인의 피해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 52명 중 1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는 결과도 있다.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1g당 1274원이다. 이는 20개비당 세금을 부과하는 궐련형 담배와 큰 차이가 있다.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궐련 20개비로 환산하면 1만9000원이다. 이는 궐련 대비 6.6배나 높은 수준이다.

세금을 높여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특정 담배에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흡연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 불공정한 세금으로 정부가 흡연자에게 궐련을 권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지나친 억측일까.

yhh1209@

특허, 톡!

中 특허법, 강력해진 증거수집제도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 공무원이 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 여부 판단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증거수집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수집제도의 선시행은 한국 특허청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글로벌 특허소송의 남발로 인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증거의 편재를 해결하고 한국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국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수집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디지털 문서의 취급이다. 디지털 문서는 그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장소의 제약 없이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소송인 경우에도 한국 기업은 침해 행위에 관련되는 한국 본사의 이메일, 제품 관련 문서 등 디지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중국 개정 특허법의 경우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현장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 기법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확장되어 한국 본사의 데이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문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 등 민감한 법적 판단에 대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문서와 별도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향후 잠재적 특허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내 꿈의 기록까지 남은 건
단 0.7초
나는 원곡고 3학년 육상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내 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
지금 내 기록 10초69로는 어림도 없지만
언젠가 나는 9초대를 뛰는
최초의 대한민국 선수가 될 것이다
내 꿈을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금융그룹
원곡고 100m 육상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KB 금융그룹